

이용호 의원, '민간SPC 부동산신탁산단개발법' 국회 본회의 통과!

민간 법인도 부동산신탁계약 체결가능하도록 하여 산단개발 안정성 확보 필요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었던 민간 법인 시행의 부동산신탁 산단개발사업이 가능해진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4일, 민간사업자가 출자·설립한 민간 법인(SPC)도 부동산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산단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SPC 부동산신탁 산단개발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민간이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산업단지 신탁개발이 가능하도록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신탁업자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려면,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



려는 자 또는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여야만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인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는 법령 미비로 인해 신탁개발을 할 수 없었다.

이용호 의원은, "현행법은 산업단지개발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차원에

서 산업단지 신탁개발을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면서, "그러나 민간법인(SPC)이 시행하는 산단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입법 사각지대로 인해, 사업 안정성과 편의성 등이 이접인 부동산신탁개발사업이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민간사업자가 출자·설립한 민간법인(SPC)도 부동산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이 가능해지고, 나아가 기존 추진 중인 산단에서 민간법인(SPC)과 신탁계약한 부동산신탁업자 역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면서, "향후 민간주도 산단개발에서 위탁자의 사업재산 보호, 사업 신용도 상승에 따른 원활한 자금공급, 사업부도 리스크 감소 등 안정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해지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이철 전남도의원 "완도항"을

"동북아물류허브항"으로 키워야한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철과 함께하면 완도가 바뀔니다"

이철전남도의원(완도1,더불어민주당)은 "완도항"을 "동북아 물류허브항"과 "서남해안권 어업전진기지"로 키워서 명실상부한 지방무역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또한 완도항이 활성화 되어 완도 지역경제가 발전되고 지역경기가 살아난다고 생각한다. 완도항에 향후 2천억대의 투자가 이루어져서 제2의 장보고 해양시대를 열겠다 고 장기계획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 의원은 도정질문과 상임위원활동을 통해서 완도항개발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였으며 완도항은 전라남도가 유일하게 개발하고 있는 지방무역항으로서 국비100%가 투입되어 항을 개발하고 있다.

피항시설인 "중앙방파제"와 소형선박피항지인 "유선부두"가 완공되고 제4차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있는 북방파제 바깥쪽의 "대체부두"와 항만터미널앞쪽의 "둘레부두"가 완공되면 완도항의 부족한 선박접안시설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한다.

북방파제 바깥쪽의 대체부두 공사 시 북방파제의 해수소통구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방파제가 완공되면 항내정온이 안정되면 관광객들에게 불거리 제공을 위하여 해상분수대의 설치도 검토할 수 있을거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광주~완도고속도로의 완공과 현재 공사중인 해남남창에서 강진거리까지의 국지도가 확장이 되면 완도항 으로의 물류는 시간과 경제적으로도 제주와 가장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물동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를 대비해서라도 현재, 신지강둑쪽과 남방파제 반대쪽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및 생태자연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장래 이부분을 해제 시키고 향후 항만기본계획에 신지강둑쪽을 매립하여 물양장을 건설하고 동방파제를 건설하여서 어업전진기지로 활용 해야한다.



완도항 항계선을 신지대교까지 확장해서 구,완도호텔에서 신지대교까지의 임항도로가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이 의원은 완도항의 비효율적인 항만개선이 필요(현재38%사용)하고 미 사용하고 있는 신지강둑마을과 신기마을쪽(62%)을 개발하여 국가적 장기비전과 물류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지역거점 항만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하면서 해양레저,관광물류 뿐만 아니라 허브항만으로서 그 중심에 서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완도항 뿐만아니라 항만사업에는 막대한 예산투입과 항상 민원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하면서 도의회에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 의원은 현재,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전문성을 발휘하여 완도지역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방안전인 화흥포항과 완도지역 지방어항 및 소규모어항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다. 군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공약, 청렴, 성실을 잊지 않고 남은 임기동안 "오직!완도 발전만 생각하며 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영안기자

김선교 의원,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수상레저활동으로 인적·물적 피해 우려 시, 금지구역 지정 가능!



수상레저활동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국민의힘)은 2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수상레저안

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최근 웨이크 서핑(모터보트가 지나가고 나서 생기는 파도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과 같은 인위적으로 큰 파도를 발생시키는 수상레저활동으로 인해, 내수면 조업에 지장이 발생하고 주변 선착장과 계류되어 있는 어선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중 인명사고 또는 타인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관련 김선교 의원은“최근 수상레저인구가 크게 늘고 관련 사업장도 급증하면서 경쟁적 운영에 따른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특히, 좁은 수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지자체는 수상레저활동으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동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어민들의 조업에 대한 안전 확보와 수상레저활동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정찬민 의원 대표발의, '사립학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의결정족수 미충족시 임시이사 선임, 조건 완화된 사립학교법 개정안 대안변영 통과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에 따라 잔여 이사가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어 학교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때,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된 사립학교법이 개정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이 지난 12월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으로 통과됐다.

그동안 학교법인의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임원취임승인 취소되는 경우,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므로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있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됨에 따른 잔여 이사가 이사회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때, 임시이사 선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임시이사 제도 취지에 더욱 부합하다"는 의견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찬민 의원은 임원 취임승인 취소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찬민 의원은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로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를 신속하게 선임함으로써 의사정족수 미달로 인해 이사회가 공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사회가 정식 절차를 거쳐 이사를 선임하게 되는 경우 즉시 해당 임시이사를 해임하게 되어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충한다는 측면에서 실익이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법 문언의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 조속한 임시이사 선임을 통해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도모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dalyculture.kr

우편번호 :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14222 평택시 시청로7 흥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회장 문기우/부회장 박유석 /사장 임성경 / 편집국장: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최수진

대표전화:1899-9659 e-mail: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치부:내선 (112) 문화부: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서울 가50146 사회부:내선 (113) 부동산부: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제부:내선 (114) 오피니언부: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부:내선 (115) 지방부:내선 (119)
편집국: 02)2612-2959 팩 스: 02)2060-4147 구독신청.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도민에게 행복을 드립니다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
경기도의회가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서울시, 국내 최대 자전거 커뮤니티와 '안전한 자전거 출퇴근 문화' 확산 나선다

매월 다른 테마 미션 수행·인증 '서울시 x 자출사' 주간 캠페인 통해 경품 증정

서울시가 7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자전거 커뮤니티 '자전거출퇴근하는 사람들'(이하 자출사)과 안전한 자전거 출퇴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공동 캠페인을 전개한다.

'자출사'는 네이버 카페 '자전거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줄임말로, '03년에 설립돼 '21년 7월 현재 70만 회원이 가입해있다.

'자출사'는 자체적으로 자전거 출퇴근 소모임, 그룹 라이딩 정류장 운영 등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금년부터 서울시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매월 넷째 주 일주일간은 '서울시 x 자출사' 주간으로 정하고, 달마다 테마를 정해 회원들이 미션을 수행하면 경품을 증정한다. 주간 중 금요일은 '자전거 출퇴근의 날'로 정해 자전거 출퇴근 인증 미션도 한다. 시는 참여 회원들을 선정해 자전거 블랙박스, 전조등 등 자전거와 관련된 경품을 증정에 참여를 이끌어낸다.

서울시는 7월 '서울시 x 자출사' 주간 주제를 '자전거 도로 안전점검'으로 정하고 26일(월)부터 31일(토)까지 캠페인을 한다고 밝혔다. 장마기간을 고려해 7월은 넷째주가 아닌 다섯째주에 캠페인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공동캠페인을 통해 코로

나 시대 언택트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목표다.

앞서 4월 서울시는 자출사와 함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캠페인 뿐만 아니라 자전거 도로 안전점검, 서울시 자전거 정책에 대한 시민 소통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할 계획이다.

지난 6월부터 자출사는 서울시와 자전거 출퇴근의 주관을 시범 운영해 자전거 출퇴근의 주간 311명, 자전거 출퇴근의 날 78명이 참여했다.

자출사는 매일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안전점검, 정책제안, 그룹 라이딩(자전거버스) 등 다양한 테마를 발굴해 운영할 예정이다.

7월 '서울시 x 자출사' 주간 미션 인증은 자출사 카페 내 서울시 x 자출사 게시판에 올리면 된다. 자출사들은 해당기간 동안 자전거 도로 등 인프라 안전점검 미션을 수행해 참여하면 된다.

도심 내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자전거 도로나 시설물 중 보수가 필요한 구간 및 불편사항을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으로 신고한 후 그 처리 현황을 게시판에 인증하면 된다.

서울시 x 자출사의 주간 중 금요일

은 5개 권역, 총 14개 지정 포인트에서 자전거 출퇴근 사진을 촬영하거나 자전거 앱을 활용해 주행거리를 인증하는 미션 수행에 성공한 자전거 이용자께 경품을 증정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시민들의 동기부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션을 수행하면 추첨을 통해 자전거 블랙박스, 전조등, 저저티셔츠 등 경품을 증정한다.

또한 월평균 12회 이상 자전거 출퇴근을 하는 자출사 회원에게는 자출사 회원 등급을 부여하고, 자전거 출퇴근 기념 티셔츠를 증정하여 소속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자출사 내 자전거 정책 공유 및 업무 효율 증대를 위한 소통 장구를 마련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정책제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7월부터 자출사 카페 내 서울 자전거 게임트 등급이 신설되어 전담 매니저들이 카페 게시판에 이용자들이 올린 자전거 도로 불편사항 등 신고 및 제안사항을 정리해 서울시에 전달하게 된다.

또한, 자출사 카페 내 서울시 자전거 게시판과 서울시에 바란다 게시판 등을 통해 이용자들이 서울시와

자전거 관련 행사와 안전이용 공동 캠페인 추진, 서울 자전거정책 공유 및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장구를 마련하였다.

자전거를 좋아하는 시민이 많이 찾는 자출사 카페 내 게시판을 활용해 서울시에 직접 제안 및 소통이 가능해 자전거 도로 유지보수, 안전이용 문화 등에 시민들의 많은 의견 교환이 이뤄지고 있다.

'21.4월~6월 3개월간 자출사 카페 내 서울시 제안게시판을 신설, 시범 운영한 결과 자전거도로 보수, 자전거 주차장 확대, 안전교육 확대 등 총 30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시는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8월초 자출사들의 인터뷰를 담은 홍보영상을 제작해 서울시 공식 자전거 SNS, 서울시 운영 영상매체 등을 통해 송출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출사와의 협력관계 강화를 시작으로 생활속 친환경 핵심 교통수단인 자전거 출퇴근 및 안전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서울 자출 주간 WEEK RIDE

07.26(월) - 07.31(토)

- 이벤트상품**
자출사 멤버십 카드 200명 한정
- 이벤트기간**
2021.07.26(월) - 2021.07.31(토)
- 당첨자발표**
2021.08.04 20:00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서울 x 자출사 공지 게시판

4 배워보고 후원받으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이용해서
4 안전한 자전거도로 알려주세요!

- 참여방법**

- ▶ **특설!** 서울시 x 자출사 행사 게시판을 이용!
- ▶ **결제목적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필수 포함
- ▶ **서울시 자전거도로 시설, 보수, 점검 등의 내용을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 신고하고 신고, 접수, 답변 등의 내용 캡처 필수 포함!**
- ▶ **대회 인증글 작성 후 응모 가능!**(당첨확률 UP)

서울 자출의 날 BIKE COMMUTERS DAY

7월 30일(금) 자출 커뮤니티데이

- 이벤트상품**
자출사 멤버십 카드 200명 한정
- 이벤트기간**
2021.07.30(금)
- 당첨자발표**
2021.08.04 20:00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서울 x 자출사 공지 게시판

4 배워보고 후원받으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이용해서
4 안전한 자전거도로 알려주세요!

- 참여방법**

- ▶ **특설!** 서울시 x 자출사 행사 게시판을 이용!
- ▶ **결제목적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필수 포함
- ▶ **서울시 자전거도로 시설, 보수, 점검 등의 내용을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 신고하고 신고, 접수, 답변 등의 내용 캡처 필수 포함!**
- ▶ **대회 인증글 작성 후 응모 가능!**(당첨확률 UP)

자출, 자퇴, 일반 라이딩 모두 가능!
개인 또는 단체(4인 이하) 자출, 퇴 패러이드 지정 포인트 2개 인증사진 필수!

인천대로, 지하화 엔진 달고 미래로 달린다

공단고가교~서인천IC 구간 '제4차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에 반영

인천광역시시는 인천대로 '공단고가교~서인천IC'도로 개설 사업 등 5개 도로 노선인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대로 공단고가교~서인천IC 6.55km(지하도로 4.5km) 구간은 이번 교통혼잡도로 계획 반영으로 왕복 4차로의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지하도로 건설은 인천대로가 시민 중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재생되는 데 핵심이 되는 사업이다.

해당 지하도로 건설에는 5,790억 원가량의 대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인천시는 국비 확보(총사업비의 50%)를 통한 시 재원 절감을 위해 2019년 11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4차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 반영을 신청했다.

한편, 이번 제4차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에 함께 포함된 '금곡동~대곡동 도로', '경서동~왕길동 도로', '제2경인(용현동)~수도권제2순환(남항부근) 도로', '봉오대로~드림로 도로'개설 사업 등도 사업타당성 결과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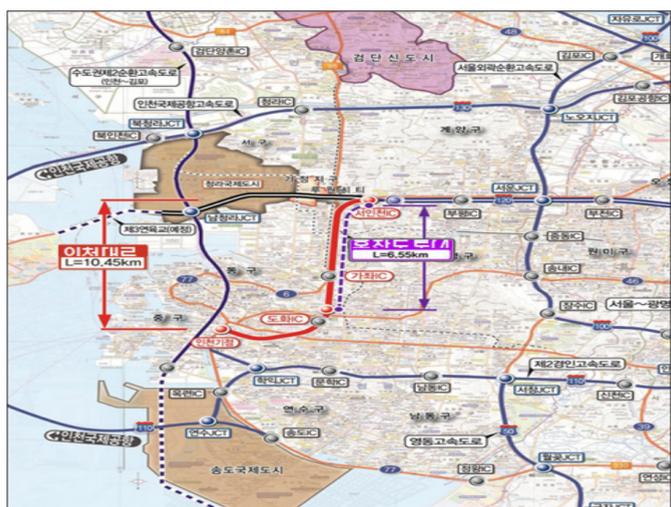
국비 지원 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대로 일반화는 용현동 기점~서인천IC 10.45km 구간에 여의도 공원에 맞먹는 약 25만㎡의 공원 조성, 응벽·방음벽 철거와 단차 해소 등의 도로개량, 주차장 11개소(1,676면) 신설, 문화공간 5개소 조성, 주요 거점 개발 등을 골자로 하는 사업이다.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은 지하도로의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 반영(2021~2025)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는 늦어졌으나, 인천시가 각각의 노력으로 성사시킨 이번 혼잡도로 지정을 계기로 금년 말 착공하는 '용현동 기점~공단고가교' 1단계 사업부터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이번 개선계획에 포함된 5개 혼잡도로 사업의 조속한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내외부 전문가 그룹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련 용역을 거쳐 금년 4분기 중 기재부 예타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대로 공단고가교~서인천IC 구간 등 5개 도로



노선이 정부 제4차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에 반영되면서 주변 지역재생과 활성화 사업도 더 큰 동력을 얻게 됐다."면서, "혼잡도로 지정에 따른 후속 과제에도 만전을 기함으로써,

김중남기자

서울 중구, 소상공인에 200억 원 규모 1년 무이자 대출

중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신한·국민·우리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업체당 2천만 원까지 무이자(1년) 융자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신한·국민·우리은행과 함께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융자보증채권을 마련, 관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금년 최초 출연이며, 우리은행은 2018년 지역경제 밀착지원을 위한 출연에 이어 두 번째 협약이다.

대상은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이 가능한 자이다. 단,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서울시 4무(無)대출' 등 타 금융 지원 관련 보증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다.

총 융자 규모는 200억 원으로 업체당 2천만 원까지 신용보증료 연 0.5%, 1년 거치 4년 균분할 상환으로 진행된다.

구에서 대출일로부터 1년간 이자를 지원하고 이후에는 약 2~3% 대수준의 1년 변동금리로 운영되며, 서울시에서도 추가로 신용보증료 지원 및 상환기간 4년 동안 연 0.8% 금리를 보전함으로써 힘을 신는다.

이에 따라, 융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신용보증료 면제 및 1년간 무이자, 2년 차부터 1.2~2.2% 대의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구의 소상공인 업체 수는 5만 2

천여 개소에 이른다. 이번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 지원으로 자금 수혈이 절실한 1천여 업체가 송풍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신청기간은 7월 26일부터 20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이며 접수는 중구 관내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중 「중구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 취급 영업점에서 받는다. ※ 영업점 정보는 중구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을 확인 가능

융자를 희망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해당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국세·지방세납세 완납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최근3년), ▲(해당업체)금융거래확인서(1000만원 초과 기업여신 또는 가계당좌예금 사용 시) ▲(해당업체)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정관사본, ▲(해당업체)운수업종 차량등록원부 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기타 은행 요구 서류 등 은행별 대출 규모는 상이하며, 자세한 문의로는 관내 접수 은행 지점으로 하면 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지금의 위기상황을 딛고 재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구로구, 여름방학 결식우려 아동급식 지원

1620명 대상... 꿈나무카드, 단체급식소, 도시락 배달 등



구로구가 여름방학 기간 아동급식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아동 1620명에게 급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아동들 중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이다.

구로구는 1식 7000원 상당의 식사를 지정 음식점 또는 단체급식소 이용, 도시락 배달 등의 방식으로 제공한다.

음식점 이용 아동의 경우 아동급식카드인 꿈나무카드를 통해 지정된 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등에서 식사 구매가 가능하다. 지정 음식점은 '서울시꿈나무카드'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구로구 관계자는 "철저한 위생관리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하에 급식을 지원해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미성기자

서대문구, 아름다운가게와 기부 물품 판매 특별전 연다

'아자아자(아름다운 자원봉사, 아파트 자원순환)캠페인' 기부 물품 판매

서대문구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홍명희)가 이달 29일 아름다운 가게 은평구청점에서 '서대문구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특별전'을 연다.

구와 아름다운가게는 나눔과 순환을 위한 공동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4월과 5월, 6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아자아자(아름다운 자원봉사, 아파트 자원순환) 캠페인'을 진행했다.

여기에 북가좌1·2동, 남가좌1·2동 아파트 주민들이 참여해 총 3,171점의 물품을 기부했다.

이번 특별전은 이들 기부 물품을 판매하는 행사로, 수익금 전액은 아름다운가게의 '2022 아름다운 나눔 보따리' 사업을 통해 서대문구의 취약계층 주민들을 돕는 데 사용된다.

조상순기자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비대면으로 진행된 자원 선순환 캠페인에 많은 주민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뜻깊었다"며 "이번 특별전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자원순환과 나눔의 가치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구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

- 시행시기: 2021. 7. 26.(월) ~ 소진시 까지
- 융자규모: 총 200억원
- 지원대상: 서울 중구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구 7등급)
- 지원한도: 업체당 최대 2천만원 한도(신용보증재단 심사 후 융자 한도 결정)
- 지원조건: ① [현행] 1년 무이자, 보증료 0.5%
② [추가] 보증료 면제 및 2차년도 이후 금리 연 0.8% 보전(서울시 지원)
- 상환방식: 1년 거치 4년 균분 상환
- 신청방법: 중구 내 은행(신한, 국민, 우리) 「중구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 취급 영업점 방문
- 문의처: 중구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무이자융자' 검색 / ☎02-3396-5043(전통시장과)

성동구, 성동구는 생활 속 피서지가 224개! 무더위쉼터, 안전숙소 전격 가동



서울 낮 외부온도가 39도까지 치솟으며 '찜통더위'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생활 속 피서지 224개소를 마련해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이달 12일부터 휴관했던 경로당 무더위쉼터가 22일부터 운영 재개되며 183개의 무더위쉼터가 가동, 야간쉼터로 활용되고 있는 안전숙소 3개소와 함께 스마트쉼터 28개소

와 중앙선 산책로변 야외쉼터 10개소도 무더위쉼터로 운영된다.

주요 무더위쉼터 지정 장소는 지역 내 도서관과 책마루 9곳을 제외한 경로당과 각 동 주민센터, 복지시설이다.

지난해 84개소에 불과했던 쉼터를 올해 경로당 160개소 추가로 대폭 확대하며 17개의 동 주민센터와 복지관 등 6곳과 함께 운영, 구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를 생활 속 피서지로 마련했다.

쉼터는 냉방기와 함께 출입자 명단작성,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을 위한 물품도 구비, 2시간마다 환기하고 2m 안전거리 유지 등으로 코로나19 예방과 함께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열대야 기간 안전숙소도 운영된다. 구는 이달 코로나19로 관광객이 줄어든 지역 내 호텔 등의 숙박시설과 협약을 체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3개 권역으로 나누어 18실을 확보하였다.

지역 내 반지하 및 옥탑 등 주거 환경이 취약한 곳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 독거 어르신 또는 만 75세 이상 고령 가구일 경우 1인 최대 2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무더위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그 중 경로당은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한다.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주민센터에서 휴일과 주말도 운영, 평일 오후 9시까지 연장하고 민간 숙박업소인 안전숙소는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운영한다.

또한 '실시간 버스-지하철 대중교통 정보 안내'와 함께 공기 중 바이러스를 죽이는 '자외선 공기살균기'와 '열화상카메라'를 갖춘 '스마트쉼터' 28개소도 무더위쉼터로 활용, 중앙선변에 그늘쉼터 10개소도 마

련되어 일상생활 곳곳에서 폭염과 열대야를 피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무더운 여름철 구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하천변 등 산책로와 선별진료소 등 5곳에 냉장고를 설치해 500ml의 시원한 생수를 제공하며 무더위에 지친 주민들의 갈증을 해소, 많은 이용자들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구는 '폭염종합대책'에 따라 단계 및 상황별 발생할 수 있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으로 횡단 보도 135개소 무더위 그늘막을 설치하고 7대의 살수 차량으로 주기적인 도로물청소를 실시, 공사장에는 무더위 휴식시간제로 인부들이 적절히 쉴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과 통장, 마을간호사, 지역 자율방재단 등으로 구성된 1,159명의 재난도우미를 편성해 지역 내 독거어르신 1,841명을 집중관리하고 노숙인을 위한 무더위쉼터도 운영, 폭염 취약계층까지 꼼꼼히 살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코로나19와 무더위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 폭염 취약계층을 위해 꼼꼼히 대책을 마련했다"며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울여름을 건강히 이겨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종로구, 35년 경력봉제장인과 함께하는 '나만의 옷 만들기'

종로구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이음피움 봉제역사관(창신4가길 26)에서 창신동공작소와 함께 '레벨업 봉제특강'을 운영하고 수강생 모집에 나섰다.

이번 특강은 창신동 35년 경력의 봉제 장인이 강사로 활약하며 세상 하나뿐인 나만의 옷 제작을 돕는다. 월별 2회 차 프로그램으로 구성, 이달 11일과 18일의 경우 여름용 의류 만들기를 진행했다. 오는 8월 22일과 29일에는 원피스를, 9월 5일과 12일에는 롱셔츠 만들기 체험을 각각 앞두고 있다. 수업 시간은 14:00부터 16:00까지이다.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밀착형 교육을 지향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열린다. 대상은 봉제 경험이 있는 성인이고 비용은 3만원에서 5만원까지 상이하다.

참여를 원할 시 종로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한 후 구글폼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종 안내 받은 수강료와 재료비를 입금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신동공작소로 유선 문의하면 안내해준다. 상담 가능 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 10:00부터 19:00까지이다.

한편 창신동공작소는 누구나 문화예술을 배워 재능을 나누고, 평범한 일상에 특별함을 더해 줄 나만의 작품을 만드는 생활예술거점으로 각광받고 있다. 예술가와 마을기획자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주민들이 교육, 창작, 전시, 공연, 축제 등을 진행하며 지역 내 문화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는 중이다.

아울러 수업을 진행하는 이음피움 봉제역사관은 서울시와 종로구가 뜻을 모아 2018년 개관한 공간이다. 이음피움이라는 이름은 실과 바늘이 천을 이어서 옷을 탄생시키듯 서로를 잇는다는 의미, 꽃이 피어나는 것과 같이 소통과 공감이 피어난다는 뜻을 더해 지었다.

가격경쟁력 하락과 고령화, 종사자 수 감소 등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장인 정신과 우수한 손재주를 선보이며 현역으로 활동 중인 봉제인들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봉제 산업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는 장소다.

김영중 구청장은 "창신동인 지역을 대표하는 봉제산업의 매력을 엿보고, 장인과 함께 나만의 옷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수업이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구로구, '아트테리어 사업' 참여 소상공인 점포 70곳 모집

관내 소상공인과 지역예술가 연계해 특색 있는 디자인 개선... 5인 미만 매장형 점포 대상



구로구가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가게 70곳을 모집한다.

구로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을 살리고 점포개선을 통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트테리어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는 소상공인과 지역예술가를 연계해 소상공인 점포의 내·외부 인테리어를 가게 특색에 맞게 개선해 주는 사업이다.

선정대상은 구로구 소재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가게 중 소비자가 방문해 상품·서비스를 구매하는 매장형 점포다.

단, 참여가게 임대차 계약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프랜차이즈, 체인가맹점, 유흥업종, 서울시 유사사업 참여가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가게에는 최대 100만원의 디자인 개선 재료비를 지급하고, 지역예술가를 매칭해 디자인 개선을 지원한다.

디자인 개선 주요내용은 ▲점포 내·외부 공간 리뉴얼(월페이팅, 윈도우페이팅, 벽지·가구 리폼 등) ▲디스플레이 디자인(월 데코, 쇼윈도 디자인, 메뉴판 등) ▲작품 설치·전시(입체 조형물, 조각, 그림 등) ▲세

품·인쇄물 디자인(머그잔, 식기, 패키지, 명함, 스티커 등) ▲브랜딩·마케팅(로고, 홍보 포스터)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 점포는 27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신청서, 사업 참여 신청 자격 확인 동의서, 가게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필요서류를 갖춰 지역경제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참조.

구로구는 8월 중 서류심사를 거쳐 점포를 최종 선정하고, 9월에는 사업에 참여할 관내 지역예술가 20명도 모집할 계획이다. 예술가에게는 단계별 활동비(총 540만원)가 지급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재도약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부평구, 희망 I·II, 청년희망, 청년저축계좌 신규자 모집



부평구는 27일 근로 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가구나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희망기움통장 I·II, 청년희망기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기움통장 I 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 가구가 가입대상이다. 가구원 중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1인 가구 43만8천679원) 이상이어야 한다.

매월 5만 원 또는 10만 원 저축 시 가입가구의 총 사업·근로소득 장려율에 따라 근로소득 장려금이 생성되며, 가입기간 3년 이내에 생계·의료를 탈수급해야 한다.

희망기움통장 II 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가입대상이다.

매월 10만 원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이 생성되며, 가입기간 3년간 자립역량강화 교육을 4회 이수해야 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을 받지 않아야 한다.

청년희망기움통장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가구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이 가입대상이다. 본인의 사업·근로소득 대비 45%의 근로소득장려금이 생성되며 가입기간 3년 이내에 생계를 탈수급해야 한다.

청년저축계좌 가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이다. 매월 10만 원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이 생성되며 가입기간 3년간 자립역량강화교육 3회 이수 및 국가 공인인증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을 받지 않아야 한다.

구 관계자는 "자립을 원하는 저소득층 주민의 삶에 희망이 되길 바라며 대상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 기초단체장 부문 '제9회 기호 참일꾼상' 수상

민선 7기 3년간 확실하고 폭넓은 구민 체감 성과 기록... "남은 1년 책임 다하겠다"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이 26일 기초단체장 부문 『제9회 기호 참일꾼상』을 수상했다.

허 구청장은 민선7기 3년 동안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혁신과 적극행정을 펼쳐 전국 최초 및 인천 최초로 기록한 참신한 정책들을 추진하며 대외적으로 확실하고 폭넓은 성과를 인정받았다.

대표적으로 '전국 최초 어르신 대상 포진 무료예방접종사업'과 '인천 최초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사업', '군 북부 청년 상해보험지원', '스마트 안심존 설치' 및 '송림도서관 가상현실체험관'을 설립하였으며, 지난 6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인천 최초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또 스마트도시 서비스사업으로 'AI

로봇인형을 활용한 지역아동 돌봄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역제조사 완료증명서 작성사업'과 '동구형 아동관리 워크북 및 영상'을 개발해 추진하고 있다.

참일꾼상을 수상한 허인환 동구청장은 "지난 3년간 동구의 도약과 미래를 향한 시간과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구민과 약속했던 정책들을 추진하며 변화를 체감한다는 구민들의 호평을 들었을 때 '할 수 있다! 희망이 있다!'는 자신감과 가능성을 봤다. 남은 1년도 구민과 소통하면서 약속했던 사업들을 마무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로 9회를 맞이한 '기호 참일꾼상'은 기초단체장에게 창간 33주년을 맞아 인천-경기 지역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직무를 묵묵히 수행해온 참일꾼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민선7기 3주년 맞은 인천 서구, '공약이행 평가단' 온라인 회의



인천 서구는 지난 22일 민선7기 3주년을 맞아 '공약이행 평가단' 회의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형규 평가단장의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 평가단은 전체 공약 추진 사항 보고를 시작으로 공약 폐기 대한 심의 등에 대해 논의했다.

평가단은 공약사업을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청소년 미래전망'은 공약 이행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공약 폐기에 동의했다.

이날 평가단은 회의 시작에 앞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

무총장을 초빙해 '새로운 미래, 담대한 여정 로컬 매니페스토'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구민과의 약속은 어떻게든 지킨다는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약 하나하나에 대해 완성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전체 공약 이행률 86.2%로 50개의 공약사업 중 26개를 완료했으며, 2021년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등급(SA)을 획득했다.

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 할증

속도 위반 및 보행자 보호 위반 시 최대

10% 할증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원장 직무대행 김근익) 및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은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 추세('16년 4,292명 → '20년 3,081명)에 있으나, '20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명)가 보행 중 발생하는 등 보행 사망자의 비중이 OECD 평균(약 20%)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보행 사망자의 22%(지난 3년)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하였으며,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을 보행하던 중 발생하였다.

보험료 할증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도로교통법) 준수를 통해 보행자(어린이·고령자·일반 등) 교통사고를 감축코자 하는 취지로서,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3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제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서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되어 왔지만,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규정이 부재했던 상황이었다.

개정되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동 규정은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

②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내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 예정이다.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강성준 과장은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으나, 아직도 보행 사망자는 OECD 평균에 비하여 높다."라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보험 및 홍보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이번 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경기도,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농지법 위반행위 집중 조사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 농지관리 도모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등 농지법 위반 사례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로서 취득한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취득(상속 또는 매매)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21.5.31일 기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

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농막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지법 상 연면적 20㎡이하로 설치돼야 하며,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사유에 해당한다.

성토의 경우에도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농업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는데, 성토 기준을 위반해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정문 철자 등을 거쳐 농지 처분업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 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을 한국에너지관리공단 등과 함께 전수조사해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을 농업경영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처분이나 원상회복 명령, 고발조치 등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하는 등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영호 도 농업정책과장은 "올해 더욱 강화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



해 농지가 부동산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을 막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의성군-의성경찰서, 휴가철 맞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합동점검 실시



양천구, 민관합동으로 공원 내 음주금지 순찰 시행

"공원에서 22시 이후에 술 드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난 22일 밤, 안양천에서 공원녹지 내 음주금지 계도에 나선 자율방범대원이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건넨 말이다.

양천구는 9일부터 시행 중인 공원 녹지 내 야간(22시~익일 05시) 음주금지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구는 동 주민센터와 자율방범대로 이루어진 민관합동 순찰단을 구성하여 공원 내 음주금지 및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일일점검하고 있다.

22일 야간에는 신정2동 주민센터와 자율방범대로 구성된 민관합동순찰단이 안양천공원 일대 벤치, 그늘막, 공터 등 사람들이 모이기 쉬운 장소를 중점적으로 순찰했다. 순찰단은 이날 공원에서 만난 주민에게 행정명령의 내용을 설명하며 방역수칙 준수를 적극 당부하였다.

한편, 야간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공원녹지 적용대상은 안양천, 파리공원 등 123개소이며,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에 고시되어 있다.

아울러 구는 지난 5일부터 주민이 많이 모이고 음주신고가 많은 안양천, 파리공원, 오목공원, 양천공원 등에 야간합동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총 6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 2개 조는 음주자 발견 시,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음주행위 위반사항을 단속한다.

김수영 구정장은 "휴대야 속에서도 코로나 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사망감소로 야간 계도 임무에 헌신해주신 신정2동 주민센터와 자율방범대에 감사드린다"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만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이전의 일상으로 가는 지름길이기에 구민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현일기자



허태정 대전시장, 코로나 차단 위해 '밤낮없이' 구슬땀



허태정 대전시장은 23일 오후 보건환경연구원 방문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 현장을 점검한데 이어, 야간에는 둔산동 갤러리아 백화점 지역을 찾아 음식점, 유흥시설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이번 야간 점검은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이행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제고할 위한 실시했으며, 송정에 대전경찰청장, 장종태 서구청장이 함께 했다.

이날 점검은 지난 21일부터 진행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의 일환으로 주말을 맞아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둔산동 일대 감성주점, 포차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허태정 대전시장 등 참석자들은 점검 대상 업소를 돌며 영업시간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업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8월 4일까지 방역지침을 철

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는 7월 2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상향한 가운데 시·구·경찰 공무원 2000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현장 점검과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구 관저동에 추가적인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하는 등 현재 추세를 조속히 차단해 4차 대응행위를 막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공직자들이 휴가도 단념하고 방역에 매진하고 있다."며 "가족과 친지 등 자신의 주변사람들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합동점검은 5개 자치구를 순회하며 진행되고 있으며, 7월 26일 유성구, 7월 28일 대덕구, 7월 30일 중구 지역 다중밀집시설 등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고정화기자

익산시, 폭염기 축산악취 3중관리로 대응 총력

익산군은 의성경찰서 등 관련부서와 7월 26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지역 내 주요 피서지 공중화장실 및 공공기관 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최근 공중화장실에서 불법촬영카메라가 잇따라 발견

되는 등 불법촬영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예방해 관광객과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만들고자 실시한다.

합동점검반은 렌즈탐지기 및 전파탐지기를 이용해 불법촬영카메라 설치여부를 파악하는 등 화장실 내부를 꼼꼼히 점검하며, 각 읍·면 또

한 담당자를 지정하여 불법촬영 근절과 예방을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관광객들과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익산시, 폭염기 축산악취 3중관리로 대응 총력

심야감시, 고농도악취점검 등 축산악취 사전차단 집중



익산시가 폭염기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축산악취 민원에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시는 9월말까지 폭염기 대비 축산악취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집중 운영중이다. 특별점검반은 미래농정국·과장을 포함하여 10개반 30명으로 편성·운영하며, 악취민원 다발농가와 도심권 인근 123개 축산악취 중점관리대상 농가에 강도 높은 지

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축산악취가 인근지역으로 확산 전에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악취 발생 즉시 단속에 집중하고자 3중 감시체계를 마련했다.

우선 초포면 둔사밀집지역, 왕궁축사단지, 신흥동 왕지평야 우사밀집지역 등 도심권 축사시설을 중심으로 환경관리과와 합동점검을 연중 실시한다. 심야시간에는 상시감시용역반을 통해 수시순찰로 악취발생 농가에 대해 즉시 악취저감을 지도한다. 또한 고농도 악취 배출시 특별점검반에서 야간 악취포집 단속을 실시하는 등 악취 발생 특성을 예측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시는 농가 스스로 악취를 측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도 적극적이다. 악취측정ICT 측정장비를 지원하여 농가 스스로 악취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시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환경친화도시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시는 폭염기 축사온도 상승에 따른 축사개방, 배기팬의 장시간 가동,

가축분뇨의 빠른 부패로 악취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농가 맞춤형 악취관리 교육·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시에서는 축산악취 관리를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자동안개분무 장치, 바이오커튼(필터), 대기필승 악취저감장치, 악취저감제, 수분조절제, 퇴비사 밀폐,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등 다양한 악취저감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무인악취 포집·측정기, 악취공간분포도 등을 활용해 보다 과학적으로 축산악취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폭염기 가축의 폐사로 농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양관리 지도 및 재해보험가입 홍보를 실시한다.

정현을 시장은 "축산악취 관리는 악취유발자인 축산농가가 우선적으로 책임의식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며 "폭염기에 대비해 축산농가가 악취발생 정도를 스스로 측정하고 개선하여 주민과 상생하는 축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선수기자

충북도,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충청북도는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에 따른 녹조 악화 및 공공수역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오는 8월 말까지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특별 감시·단속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3단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1단계(6월)는 환경오염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호우 대비 시설 등, 오염물질 저감방안 등 대책수립 및 자체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사전예방 활동을 유도한다.

2단계(7월~8월 중순)는 집중호우 시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불법배출이 우려되는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

고, 악성폐수배출업소(염색·피혁·도금 등)·폐수수탁처리업소 등의 방지시설 미가동,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집중호우 시 부실관리가 우려되고 녹조 발생률 증대의 주범인 상수원 주변 대규모 환경기초시설, 매립시설, 오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감시와 단속도 강화한다.

3단계(8월)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시설파손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방지시설 등에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단순 경미한 사항은 계도 등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은 관련 법률에 따

라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고발조치를 취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여름철에 실시한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에는 도내 22개조 50명이 투입돼 504개 배출사업장을 단속한 결과, 91개소의 위반사업장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고발조치를 했다.

충북도 이일우 기후대기과장은 "이번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추진을 통해 사업장의 환경관리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율적인 예방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하남시, '아동이 행복한 하남시' 아동참여위원회 첫 정기회의

김상호 하남시장 “보다 폭 넓은 아동 참여권 보장 최선

하남시는 제1기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 첫 정기회의를 갖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시는 26일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제1기 아동참여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동참여위원회는 만 18세 미만 아동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에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구성된 아동 자치기구다.

시는 지난 4~5월 공개모집을 통해 초등학교 9명과 중학생 6명, 고등학교 3명 등 총 18명으로 제1기 아동참여위원을 선발한 바 있다.

이날 행사는 김상호 시장과 아동참여위원 1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 ▲아동권리 영상교육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제1차 정기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위촉식은 사전 전달한 위촉장을 영상으로 수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이어 초대 아동위원장으로 전유라(덕풍중 2학년), 부위원장으로

권유환(갑일초 6학년) 위원이 투표로 각각 선출됐다.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아동의 눈높이에서 시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 등 시와 아동이 있는 소통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김상호 시장은 인사말에서 UN 아동권리협약 4가지 아동 권리인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을 언급하며, 특히 참여권의 의미를 강조했다.

김 시장은 “참여권은 아동이 가장 능동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라며, “시에서는 아동과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해 청소년의회, 청소년수련관 관장제, 청소년 참여예산제를 운영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참여위원회도 같은 취지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아동친화도시의 미래를 시와 함께 고민해 나가는 특별한 위원회”라고 밝혔다.

정기회의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권리의식 강화 캠페인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놀스리사업' 등 2개 안건에 대한 위원들의 제안과 토론이 이어졌다.

아동학대 캠페인에 대해서 위원들은 '학대받는 아이들 주변 환경부터 개선하자'는 의견, '연극과 같은 형태로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캠페인'으로 개최하자'는 의견 등 현실적 제안

을, 또 놀스리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과 장소 등 문제에 대한 제안을 활발히 나눴다.

정기회의가 끝난 후 김 시장은, “아동이 행복한 하남에 무엇이 필

요한지는 아동들이 제일 잘 알 것”이라며, “아동과 청소년이 보호받는 대상을 넘어 시를 직접 만들어가는 주체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더 폭 넓은 참여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다음달 11일 시의회,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남경찰서, 하남소방서, 국네이비스 경기동부지부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6대 유관기관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등 아동이 행복한 하남 조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천시, 스마트 통합돌봄 인프라(워크봇) 확충 공모 선정

부천시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주관 2021년 로봇활용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 공모에 '모두가 누리고, 건강한 삶과 회복을 지원하는 보행 재활운동로봇(워크봇)' 콘텐츠로 최종 선정됐다.

보행재활운동로봇(워크봇)은 최첨단 보행재활로봇 시스템을 이용하여 뇌졸중, 척추손상, 뇌성마비 등 보행 장애를 겪는 환자에게 개인별 최적화된 보행동작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재활치료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로봇이다.

시는 2018년부터 3년여간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 사업설명회 참가, 재활로봇 운영기관(화성시) 벤치마킹, 보행장애인 대상 필요도 설문조사 등 보행재활로봇 도입을 위한 기틀을 다지고 부천시장애인복지관, 부천산업진흥원, ㈜피엔에스메카닉스

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번 사업에 공모했다. 총 사업비는 3억 원으로, 사업 선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사업비 지원을 받아 올 하반기 부천시장애인복지관에 워크봇-G(Walk-Bot-G, 보행 재활로봇)를 도입할 예정이다. 시는 2024년까지 3년의 성과 활용 기간을 거쳐 본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로봇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지원 공모사업'을 장애인으로 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융합형 선도사업

의 시범사업이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로봇활용 비대면 돌봄서비스의 필요성과 장애인 의료·건강 서비스 욕구 증대에 따라 추진됐다.

시는 재활로봇을 부천시장애인복지관에 보급하여 보행기능이 저하된 지체·뇌병변 장애인에게 맞춤형 보행 훈련을 제공하고 보행장애인의 재활치료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보행장애인에게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고, 사업 선정으로 위해 노력한 공직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부천시형 뉴딜사업인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재활로봇인 워크봇을 보급하고 있는 바, 수요자 입장에서 필요한 기능을 로봇에 반영하여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까지 확대하는 융합형 선도사업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보편화를 위해 지난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시에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확충했다. 또한 장애인 및 정신건강분야 서비스를 추가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부천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순희/기자



포천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순항 시민 안전이 최우선

포천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집단면역에 한 발짝 다가섰다.

시는 백신 접종이 처음 시작된 지난 2월부터 7월 26일 현재까지 1차 접종 대상자 67,182명 중 59,608명인 89%가 접종을 마쳤으며, 2차는 64,527명 중 17,431명이 접종을 마쳐 27%의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안전적이고 신속한 접종을 위한 초저온 냉동고의 3중 안전장치, 예진 대기자들의 편의를 위한 자동호출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한, 접종실 접종상황 알리를 위한 접종상황 표시등, 센터 내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CCTV와 방송용 앰프, 180석 규모의 대기석 마련, 포천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질서유지 및 안내, 접종센터 내 코로나19 전담 예방접종 콜센터 운영 등 접종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으로 타 시군 및 기관에서의 벤치마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최악의 무더위에도 시민들의 안전한 접종을 위해 대형냉장고와 제빙기를 설치해 시원한 포천생수

와 얼음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기장소의 편의도모를 위해 설치해 놓았던 캐노피 천막은 몽골천막으로 전면교체하여 폭염에 대비할 예정이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지난 23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직접 방문해 코로나와 무더위에 지쳐 있는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여러분들의 소중한 땀방울이 시민들의 건강과 일상을 하루 빨리 되돌릴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백신을 접종 받는 것이다.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다. 집단면역이 형성되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는 포천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 설치·운영 중이다. 예약제를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하며, 오전은 11시 15분까지 오후는 오후 5시까지 현장도착 접수확인자에 한해 접종 가능하다.

정동희/기자



연천군, “스마트폰 전자지도로 연천 관광지 한눈에”



앞으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연천군 주요 관광지와 숙박, 맛집 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됐다.

연천군은 관광객이 지역 관광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연천군 스마트 관광전자지도(앱)'를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연천군 스마트 전자지도는 연천 9경 등 주요 관광지를 검색해 찾아갈 수 있다. 재인폭포, 차탄천 주상절리, 한탄강 관광지 등 관광지별 리뷰 및 주변 맛집, 숙박업소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관광지에 대한 GPS 연동으로 현재 위치에서 버스 도착 시간 등 대중교통 안내 및 네비게이션으로 길 안내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별례에는 11개의 테마가 마련돼 있어 관광명소, 농촌체험관광, 주변 음식점과 숙박 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더보기 기능은 연천군 홈페이지와도 연동하고 있다.

연천군 스마트폰 전자지도는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창과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연천군스마트 관광전자지도 검색 및 QR코드로도 전자지도를 볼 수 있다.

QR코드는 관광지에 비치한 연천동서남북찾아가기 관광안내 책자 등에서 스캔이 가능하다.

군은 변경되는 관광정보를 수시로 실시간 업데이트하고 종이지도의 단점을 보완해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앞으로도 관광전자지도 기능을 보완해 스마트폰 하나로 연천군의 각종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광명시, 유흥시설 밀집지역 합동 특별점검

코로나19 4차 유행 저지를 위한 유흥시설 밀집지역 경찰 합동 점검·단속 강화

광명시는 지난 23일 유흥시설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 및 광명경찰서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최근 지속적으로 일일 천 명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마련됐다.

광명시는 이종구 광명시 부시장, 위생과 직원 등 13명, 식약처 1명, 광명경찰서장 등 10명 및 남부자치경찰위원 1명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철산동 상업지역 유흥·단란주점, 식당, 노래방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이번 유흥시설 밀집지역 특별단속 합동점검은 7월 23일부터 8월 말까지 진행될 계획이며 관련 기관별로 긴밀히 협력해 현장의 방역 수칙 준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 점검기간에는 단속업소의 재영업 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집합금지 명령 위반, 운영시간 위반 등 방역수칙 위반, 불법 유흥 영업에 대한 중대 위반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 및 과태료 처분 등 엄격하게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광명시는 정부합동 특별점검



단 확대 운영에 발맞춰 지난 7월 8일부터 식약처, 보건복지부, 광명경찰서, 위생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매일 주·야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유흥시설 91개소, 식당·카페 85개소, 숙박시설 39개소, 목욕장업 5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집합금지 위반 등으로 적발된 4개소와 이용자 22명에게 대해 고발조치를 했고 방역수칙 안내문 미게시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현장에서 보완조치 했다.

광명시는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이후 현재까지 위생업소 관련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를 한 업소는 총 46개소이고 이용자는 총 278명이다.

이종구 부시장은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코로나19에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유흥가 밀집지역을 점검하는 한편 영업자뿐만 아니라 시민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전순희/기자

여주세종문화재단,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부들풀 부채 만들기

온라인으로 만나는 명성황후기념관 7월 문화가 있는 날

여주세종문화재단이 오는 7월 명성황후기념관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으로 비대면 체험 교육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부들풀 부채 만들기를 진행한다.

명성황후기념관은 여주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 매달 '문화가 있는 날'을 진행하고 있으며 7월 '문화가 있는 날'은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을 자제하고 있는 초등학교를 위한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 파괴로 인한 기상 이변으로 매년 불볕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 문화가 있는 날은 에어컨과 선풍기가 밀려 점차 잊혀져가는 우리나라 전통 부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천연 소재인 부들풀 부채를 직접 만들어보며 옛것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경험과 가족과 함께 하는 소중한 시간을 선물한다.

여주세종문화재단 김진오 이사장은 “자연 환경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이때에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부들풀 부채를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나아가 모두가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 교육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여주세종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는 교육자료



를 직접 수령 후 재단의 온라인 플랫폼으로 동영상 시청하며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이성률/기자

고양시, 킨텍스에서 MICE 대표 국제회의 개최한다

'2021 고양 데스티네이션 위크'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



고양시가 주최하고 고양컨벤션뷰로가 주관하는 '2021 고양 데스티네이션 위크'가 8월 25일(수) ~ 26일(목) 이틀 간 킨텍스 그랜드 볼룸에서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 병행)로 개최된다.

2017년 최초 개최 이후 MICE분야의 대표적인 국제회의로 성장해온 이번 행사는 한국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한국MICE협회, 한국PCO협회 등 국내 대표적인 MICE지원기관들이 후원한다.

또한 컨벤션분야 가장 권위 있는 국제기구인 International Convention & Congress Association, 전 세계 도시지속가능성 네트워크인 Global Destination Sustainability Index 및 글로벌 MICE컨설팅사인 Gaining Edge가 행사에 참여한다.

'MICE, 도시를 되살리다 (MICE, Reboot the City)'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첫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국제 데스티네이션 경쟁력 포럼'이 열린다. 둘째 날에는 도시마케팅 세션인 '아시아 데스티네이션 라운드 테이블', 지속가능성 세션인

'GDSM 아시아 태평양 포럼'이 열린다.

행사에는 국내외 MICE분야 석학 및 전문가들이 연사 및 토론자로 참여한다. 특히 첫날 기조강연은 지속가능개발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인 Jeffrey Sachs (美)콜롬비아대 교수가 '지속가능성과 도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전)UN사무차장 김원수 대사의 진행으로 김철원 경희대학교 교수가 함께하는 특별대담을 한다.

이번 행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달라진 MICE산업 환경에 대해 산업관계자들에게 이해와 경쟁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 시민에게는 코로나 이후 도시의 회복에 있어 달라지는 MICE의 역할과 효과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장이 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고양 데스티네이션 위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MICE행사로 도약할 수 있도록, 나아가 고양시를 '아시아 MICE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영기기자

오산시 유엔군 초전기념관, 제5회 한국전쟁 체험박람회 개최

오산시 유엔군 초전기념관은 유엔군 참전의 날인 오는 7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5회 한국전쟁 체험박람회 Ontact+SafeOfftact (온택트 더하기 세이프오프택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를 맞는 이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온·오프라인 결합형 행사로 진행된다. 온라인 행사인 '제5회 한국전쟁 체험박람회 Ontact'는 오는 7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을 시작으로 10월 31일까지 개최한다.

온라인전시관에 접속해 유엔군 초전기념관의 상설 전시실과 죽미령 평화공원 일대를 관람할 수 있다. 이후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 유엔군 초전기념관에서 개발한 모바일 게임형 교육콘텐츠 '한국전쟁 평화보드게임 ONLINE' 꿈꾸는 평화 실천가'를 체험함으로써 한국전쟁의 내용과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오프라인 행사인 '제5회 한국전쟁 체험박람회 SafeOfftact'는 8월 13일부터 8월 15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운영되는 100% 사전 예약제가 적용된 프로그램이다.

'작전명령! 죽미령을 조사하자.'라는 주제로 진행 선생님과 함께 죽미령 평화공원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전쟁과 오산 죽미령 전투

를 퀴즈와 AR (증강현실) 게임으로 만나볼 수 있다. 더불어 7월 2일부터 8월 29일까지 유엔군 초전기념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되는 전쟁기념관 협력마케팅 이동형 전시 모듈 특별전 '가슴에 단 명에 6·25전쟁과 무공훈장'까지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유엔군 초전기념관 학예연구사는 "오산 죽미령 평화공원이 평화와 감사의 의미를 담은 장소인 만큼 Ontact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SafeOfftact를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평화공원에서 한국전쟁과 평화의 의미에 대해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온·오프라인 행사 참여 후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소중한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경기도 등록문화재로 등록 추진 중인 유엔군 초전기념비 캐릭터가 있는 다양한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한편 2013년에 개관한 유엔군 초전기념관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 지상군이 남하하는 북한군과 최초로 교전을 벌였던 전적지인 오산 죽미령에 세워진 국가수호 현충시설이자 공립박물관이다. 2020년 7월 5일에는 스미스 평화관과 죽미령 평화공원이 개장해 시민을 위한 살아있는 역사평화교육의 장이자 쉼터로 활용되고 있다.

김남주기자

안성시, 치매 환자 실종 예방 손목형 배회감지기 무상 보급

GPS 기능 내장되어 위치 파악 가능



다. 손목형 배회감지기는 위치 추적 장치(GPS)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보호자가 전용 앱을 통해 착용자의 위치와 동선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에 설정해 둔 구역(안심존)을 이탈할 경우 보호자에게 알림을 전송하고, 위기 상황 긴급 호출(SOS) 알림도 가능하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 및 경찰청, SK하이닉스 간에 '배회감지기 무상 보급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안성시 치매안심센터는 오는 8월 2일부터 배회·실종 경험 또는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손목형 배회감지기를 무상 보급한다고 밝혔다.

'배회감지기 무상 보급 사업'은 SK하이닉스의 사회공헌사업으로, 치매 환자에게 위치 추적 장치인 배회감지기를 보급하고 통신비(2년)를 전액 지원하며, 치매 환자 실종 시 빠르게 발견하여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정혜숙 보건소장은 "치매 환자가 실종되면 이동 경로 추적이 어려워 안전에 크게 위협을 받는데, 이번 배회감지기 보급을 통해 치매 환자 실종 시 조기에 발견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이 모두 안심하고 살아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배회 가능 노인에게 인식표를 발급하고 경찰서와 협업을 통한 사전 지문 등록 등 치매 어르신들의 실종 예방을 위한 치매 환자 지원 서비스도 추진 중이다.

원종균기자

하남시, 폭염·코로나19 대비 상수도 시설물 건설현장 점검



하남시는 폭염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수도 시설물 건설현장을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내에서 공사 중인 보급자리지구 용수공급시설(감일배수지 및 송배수관) 설치 현장을 대상으로 시 친환경사업소장 및 관계 공

무원,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2일 진행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폭염주의보·경보에 따른 휴게시설 운영 및 휴식 보장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음료·일음 등 비치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등으로,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 여부에 주안점을 뒀다.

점검 결과 현장에서는 근로자 휴게시설 운영, 음료와 식염 비치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여건이 조성돼 있었으며, 폭염특보 발효 시에는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을 자제하는 등 근로자 보호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을 마친 친환경사업소장은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해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코로나19 방역관리에도 힘써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 달라"며 철저한 현장관리를 당부했다.

박강호기자

×제5회× 한국전쟁 체험 박람회

- 온라인**
 - 일시 2021. 7. 27 (화)부터 10. 31 (일) 까지 3개월간
 - 장소 온라인 전시관
 - 내용 초전기념관 온라인 전시 감상하기, 꿈꾸는 평화실천가 게임, 머스크 체험 활동하기
- 오프라인**
 - 일시 2021. 8. 13 (목)부터 8. 15 (일) 까지 3일간
 - 장소 오산시 유엔군 초전기념관
 - 내용 작전명령! 죽미령을 조사하자, QR코드 접속으로 사전예약하고 가족과 함께 죽미령 평화공원을 탐험하기

모든 행사의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행사문의 유엔군 초전기념관 (031) 377-1625

남원 농·축산물로 가장 맛있는 요리 만들기

공모내용
남원 농·축산물을 재료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맛있게 먹는 영상

결과발표
2021. 8. 31. 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

작품심사
심사위원 10명 선정 후 국민심사 (유튜브 좋아요 득표수 평가) 최종선정 : 심사위원 점수 50% + 국민심사 점수 50%

출품작규격
아래 3가지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함.
① 영상 자막 또는 화면에 남원 농산물 구입처 표기
② 요리 방법 소개
③ 맛있게 먹는 먹방
※ 출품작 규격 이외 영상 촬영 장소, 내용 구성, 화질 구성 등은 자유형식으로 하되 영상 길이는 최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함

2021 남원시 유튜브 영상 공모전

접수기간 : 2021. 8. 1(일) ~ 8. 9(월)

이거 보면 먹고 싶을걸~

시상내역

구분	작품수	시상금	비고
대상	1	3,000천원	상금
최우수상	2	각 1,500천원	
우수상	2	각 1,000천원	
입선	5	각 300천원	

제출방법
참가신청서 1부, 약속서 1부, 출품작 1편 제출(hijins@korea.kr)

문의처
남원시청 홍보전산과 홍보계 ☎063-620-6044
※ 기타 세부사항 및 신청서류는 남원시청 홈페이지 참고

경북 동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가능성높다



경상북도는 경북 동해안 일대의 미래 가치를 극대화하고 세계적 브랜드 가치를 확보하고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경북도는 22일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제2차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 운영협의회'에서 동해안 지질공원사무국이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마련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 전략에 대해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깊이 있는 논의와 의견을 나눴다.

이번 추진전략은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 운영을 위해 구성된 관계기관 협의체인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 운영협의회'가 지난해 10월 첫 번째 회의에서 '경북 동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 전략'을 수립할 것을 동해안지질공원사무국에 요청하면서 나온 것이다.

이날 논의된 추진전략의 주요내용은 ▷유네스코 인증기반 구축을 위해 현재 국가지질공원 운영의 내실화 추진 ▷선제적인 국내외 관련 동향의 파악과 대응 ▷효율적인 추진 체계 확립과 관계기관별 역할 분담이다.

동해안 4개 시군(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의 해안과 일부 낙동정맥을 포함해 조성된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은 2017년에 환경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된 바 있으며, 전체 면적 2,261㎢로 전국에서 가장 넓은 구역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처럼 규제가 아닌 지역주민과 탐방객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자연에 대한 보전가치를 일깨워 자발적인 보전을 유도하는 지질공원은 지역의 우수한 자연생태자원의 보전과 관광자원화를 장려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외에서 매우 각광 받고 있다.

권경수 경상북도 환경정책과장은 "경북 동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으로 세계적인 지역 브랜드 가치를 획득하고, 이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 증가로 동해안권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시군, 전문가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해 최종 인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논의된 추진전략의 주요내용은 ▷유네스코 인증기반 구축을 위해 현재 국가지질공원 운영의 내실화 추진 ▷선제적인 국내외 관련 동향의 파악과 대응 ▷효율적인 추진 체계 확립과 관계기관별 역할 분담이다.

이후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로부터 인증 후보지로 지정받게 되면, 본격적인 유네스코 신청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2023년에 유네스코로 공식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이듬해인 2024년 상반기에 서류평가와 현장심사를 거쳐 같은 해 하반기에 예비 인증 결과를 알 수 있게 된다.

최종 공식 인증여부는 2025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유네스코 정기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앞으로 경상북도는 인증 추진을 총괄하게 되며 특히 관련 예산 지원에 앞장설 계획이다. 시군에서는 안정적인 사무국 운영지원과 주민협력사업 발굴 및 운영지원 등 주민협

력분야와 안내관과 도로표지판 등 시설물 정비에 주력하게 된다. 관련 신청서 작성과 실질적인 인증 절차의 수행은 동해안지질공원사무국에서 전담하게 된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절차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도 대략 4년 정도가 걸릴 전망이다.

첫 번째 관문인 환경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후보지 지정평가를 통과해야 하는데, 경상북도는 이를 위해 관련 신청서를 내년 6월 말까지 환경부로 제출할 계획이다.

이승을 청도군수, 캔털루프 멜론 농가 방문 격려



이승을 청도군수는 지난 23일 캔털루프 멜론의 첫 출하를 앞둔 하늘담은 정원 농가를 방문해 격려했다.

지난해 애플망고 재배에 성공 공화를 쓴 하늘담은정원 농가는 오는 7월 30일부터 처음으로 캔털루프 멜론을 출하할 예정이다.

캔털루프 멜론은 17브릭스 이상의 고당도 멜론으로, 다른 멜론에 비해 2배 이상의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강점이 있다.

또한, 베타카로틴 함유량이 높아 와인, 코코아와 함께 세계 3대 장수식품으로 꼽히며, 베타카로틴은 인체에

해로운 활성산소로부터 신체를 지켜주는 역할을 해, '활성산소억제효소(SOD)'라는 항산화 물질도 풍부해 기능성 식품의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김희수 대표는 "농장을 직접 방문하여 격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농사에서 있어 수확을 적기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에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농촌인력지원센터의 도움을 톡톡히 봤고, 자원봉사자의 도움도 몇 차례 받아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승을 청도군수는 "요즘 청도군으로 귀농해서 새로운 작목을 시도하여 농사짓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군에서 지역특화사업, 지역활력화 사업 등을 농가에 접목시키고, 재배기술 보급, 농가 수 증대, 유통의 전문화 등을 지원해, 특히 작물이 고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지속적으로 새로운 대체 작물을 발굴·육성하여 농가소득 창출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늘담은정원 농가는 지난 2013년에 청도로 귀농하여 애플망고, 파파야 체리 등의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이번에 캔털루프 멜론을 3톤 이상 수확할 예정이다.

한반식기자

포항시,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지역 확산 차단 방역 고삐 죄다!

정부,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7일부터 8월 8일까지 3단계로 격상

포항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철저한 동참으로 고강도 방역 조치에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포항시는 26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비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포항에서도 27일부터 8월 8일까지 3단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1주간 전국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511.5명으로 지난주 1386.3명보다 9.0%(125)명 증가했다. 또한, 비수도권은 21일부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500명대를 이어가고 있고, 전파력이 높은 델타변이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유행의 풍선 효과 및 지역 간 이동을 통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7일부터 지자체별로 상이했던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일괄 상향



하기로 했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8월 8일까지 연장했다.

3단계에서는 식당·카페의 영업은 오후 10시까지만 허용되고,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

50인 이상 행사·집회는 금지되며, 종교시설의 경우 수용인원의 20%로 운영하고 모임·행사, 식사, 숙박은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도 총 49인까지만 참석이 가능하다.

또 다중이용시설 중 유희·단란주점,

플라텍, 홀덤펍, 노래(코인)연습장, 수영장, 목욕장 등은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을 제한하고, 숙박시설은 객실의 4분의 3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포항시는 식당과 카페, 학원과 결혼식장·장례식장, 종교시설 등을 대상으로 격상된 방역수칙이 잘 정착되도록 방역수칙 준수 및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포항시는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수도권 및 타 지역 방문자에 대

해 이달 9일부터 KTX역에 임시선별 진료소를 설치해, 수도권 등 타 지역에 방문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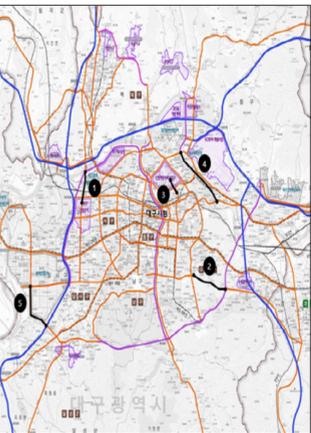
또한, 포항의 지정 해수욕장 6개소는 개장시간의 배사장 내 음주 및 취식행위 금지 및 마스크 의무 착용과 사적모임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폐장 시까지 유지하는 등 확산세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병삼 포항시 부시장은 "3단계 격상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이 길어져 송구스럽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대유행의 위기를 맞아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다시 한 번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비수도권 전체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조치에 적극 동참·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등 타 지역을 다녀오면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꼭 PCR 검사를 받아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이번 방역·휴가철에는 집에서 안전하게 지내주시길 것을 거듭 요청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김기현기자

대구시, '매천대교~이현삼거리 등 5개 도심 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이 국가 계획으로 최종 선정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개선계획'은 도로법에 따라 교통흐름의 획기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주요 대도시권 간선도로 체계 확립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매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제4차 혼잡도로 개선계획(21~25)을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함에 따라 대구시는 매천대교~이현삼거리 도로건설 등 7개 사업에 대해 국비지원 사업으로 건설하고자 국가 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2019년 3월에 요청했다. 그간 수차례 자료 제공과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건의했고, 주호영, 김상훈, 윤재옥, 류성걸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 결과 본 5개 사업이 최종 선정돼 향후 도심 교통혼잡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9월 용역을 발주해 전국에서 신청한 67건의 사업에 대해 국토연구원에서 적정성을 검토하여 최종 23건을 채택했고, 이 계획(안)을 기획재정부 협의의 마친 후 국토교통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의서 7일간의 심의절차를 거쳐 23일 최종 확정했으며 이를 7월 말경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대구시의 혼잡도로 국가계획에 선정된 사업은 5건으로 「매천대교~이현삼거리」도로건설 / 「법안삼거리~황금고가교」도로건설 / 「동대구(파티마병원)~신암북로」도로건설 / 「금호강변(공항공도~화랑교)」도로건설 / 「달서대로 입체화」등 총 5개 사업에 연장 11.9km, 이며 소요 사업비는 7,318억원 규모이다.

세부사업 내용은 「매천대교~이현삼거리」도로건설은 서대구역사 건립과 연계해 철도 이용객의 접근성 향상과 서대구IC 주변 교통혼잡완화를 위해 신천대로(매천대교)에서 이현삼거리까지 1.4km를 연장하는 사업이며,

법안삼거리~황금고가교」도로건설은 수성구 연호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혼잡구간 우회기능으로 물류여건 개선과 신천대로 등 도심의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수성구 연호동에서 황금동까지 3.1km 건설하는 사업이다.

남궁영기기자

경주 HICO서 '코로나 블루' 떨쳐낼 '심리방역 축제'...오는 11월 열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오는 11월 6일~7일 이틀 간 명상 등 심리지원 서비스를 위한 이른바 '심리방역축제'가 경주에서 열린다.

경주화백컨벤션센터와 (사)힐링산업협회는 지난 23일 HICO에서 '2021 힐링페스타 경주'를 공동 주관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 HICO 김용국 사장과 힐링산업협회 백상진 회장을 비롯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HICO와 부문단지 일원에서 열리는 '2021 힐링페스타 경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의 우울지수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힐링트리아에슬론, 요가컨퍼런스, 명상, 심인물워크숍, 힐링 진단 및 상담, 힐링 인플루언서 토크 등 다양한 힐링 액티비티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HICO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과 우울감 해소 노하우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힐링산업협회 백상진 회장은 "2021 힐링페스타 경주가 팬데믹 이후 일상에서 삶의 가치를 찾아가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 힐링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ICO 김용국 사장은 "2021 힐링페스타 경주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지역민 및 관광객의 심신 건강 회복과 관리를 위한 힐링 문화를 생산하고 확산하는 계기를 조성하고, 향후 '힐링 레저산업전(가칭)' 개최 등 경주 브랜드 주관 전시회 행사로 유지 발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의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된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될 예정이다.

한반식기자

의성군, 50대 백신접종 사전예약률 경북 1위, 전국 평균 84.0%보다 6.3%p 높아



의성군이 50대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율에서 90.3%를 기록하며 경북도 평균 82.6%보다 7.7%p, 전국 평균 84.0%보다 6.3%p 높은 수치를 보였다.

사전예약에서도 85.7%를 기록하여 경북 1위를 달성했으며, 1차 대상자를 기록하며 경북도 평균 28,825명이 접종을 마쳐 전체 접종률 86.5%를 달성했고 이 가운데 12,995명이 2차 접종도 완료했다.

김세기기자

창원시, '케이조선'기업의 날 지정 대대적 기업홍보 추진

STX 조선해양 - 케이조선으로 사명 변경

창원시는 7월 28일을 '(주)케이조선 기업의 날'로 지정하고 8월 6일까지 10일간 기업주간으로 운영하며 대대적인 기업홍보 활동을 전개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업의 날은 대규모 투자,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정된다. 기업의 날 지정기간 동안 사기계약 허가,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기업홍보 활동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케이조선 기업의 날은 창원관광 일대 및 진해구 주요 도로에 회사 배너기 계약, 디지털전광판·BS 시스템 기업홍보 문구 송출, 신사업출범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케이조선의 이름을 알리게 될 예정이다.

케이조선(구. STX조선해양)은 전년 11월 KHI-유양코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과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 4월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2500억원 상당 대규모 투자유치 종결 시 사명변경을 의결했으며 7월 26일 케이조선으로 사명 변경을 완료했다.



이에 허성무 시장은 지난 20일 케이조선을 방문해 CI(기업로고) 변경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시찰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조선업황의 회복과 뚜렷한 수주 개선 흐름에 창원시민을 대표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케이조선은 전년에 복수의 선사로부터 5만 t급 2척, 6,600 t급 PC선 2척을 수주하였고 2021년에는 11.5만 t급 2척, 5만 t급 13척, 6,000 t급 PC선 3척과 옵션 4척을 수주하여 2년간 무려 26척(옵션포함)에 이르는 대대적인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극복 이후 예상되는 세계 경제 회복과 IMO 규제 강화로 노후선박 교체 등을 위한 신조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이외에도 코로나19 극복 이후 예

상되는 세계 경제 회복과 IMO 규제 강화로 노후선박 교체 등을 위한 신조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이에 발맞춰 창원시도 진해구를 산업위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각종 정부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진해 조선업 관련 기관 및 기업을 초청하여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조선사 근로자를 위한 초청 음악회를 개최하여 조선업 재도약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오랜 침체기를 거친 한국 조선업이 슈퍼사이클을 맞아 수주 랠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케이조선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은 앞으로 창원 조선업계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뛰어난 선박 건조 기술력과 다양한 건조 경험을 갖춘 케이조선이 창원경제 혁신의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용 안정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남해FM공동체라디오방송국이 생긴다

지난 21일 방송통신위원회 91.9MHz 정식 허가받아



남해군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은 '남해 FM라디오 방송국'이 곧 개국할 예정이다.

사)남해FM공동체라디오방송 대표이사 이태인(55)씨는 '지난 21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 허가를 공식적으로 받았다'고 밝히고 "미디어 문화 불모지 남해군에 새로운 미디어 문화의 역사를 열게 되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남해FM공동체라디오방송은 지난 2002년 정부 시범사업 추진 시도 이후 17년여만에 이룬 성과로, 지난해 9월, 정부의 공동체라디오방송 수요 조사에 응한 뒤 10개월만에 정식 허가를 받게 되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은 지역밀착형 방송으로 시 구, 군 단위에 각각 1개 소만 FM라디오방송을 허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FM전파를 이용한 방송은 그 지역 공동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송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세계적인 트렌드는 '보이는 라디오' 방송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남해FM방송도 91.91MHz 전파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용 APP(앱)과 각종 SNS를 통해 동시에 방송된다.

사실상 난징 지역과 혼신 구간을 극복하면서 전국 방송이 가능한 구조인 셈이다. 남해FM공동체라디오방송은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실제 방송프로그램 운영은 군민들이 자원봉사자로 직접 제작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방송국에서는 지역의 각 기관 및 사회단체들로 이루어진 거버넌스 조직과의 업무협약과 희망하는 군민들의 참여를 통해 방송 제작인력을 확보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방송분야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음악, 문화, 지역 정보제공 등 프로그램 편성이 가능하며 '보도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다만, 정보 프로그램의 형식으로 타 언론매체에 뉴스 등을 제공받아 방송은 가능하며, 지자체와 협약체결을 통해 재난재해 방송도 가능하다.

이태인 대표는 "남해FM은 4만 남해군민과 45만 향우사회를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재원은 사업자 자체 조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방송법 시행령 제13조의 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광고, 협찬고지, 기부금, 지자체 보조금, 회비 등으로 운영된다.

전국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조금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과 공동체라디오 제작지원 사업 등 정부 기금사업과 정부 공공일자리 사업(사회적 일자리 사업, 청년 일자리 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통한 기금사업으로 일부 충당하고, 남해FM공동체라디오방송국의 경우 내년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통해 자생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공동체라디오방송 사업은 정부에서 2002년 처음으로 공모를 통해 8개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17년여만에 신규허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번 공모는 전국 60여 지역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마지막까지 완주하고 정식 허가를 받은 곳은 20개 지역으로 경상남도에서는 남해FM공동체라디오방송이 유일하다.

사)남해FM공동체라디오방송은 뜻있는 군민 12명이 모여 설립한 비영리사단법인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4월 26일 발기인 창립총회에서 이태인(55세)씨가 대표이사로 선출되었다.

이태인씨는 국내 컴퓨터 1세대로 1999년 남해군 첫 홈페이지를 제작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지역에서 IT사업과 함께 인터넷신문을 운영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방송편성책임자는 임종욱(59)씨로 동국대학교 한문학 박사학위와 지난 2012년 제3회 김만중 문학상 장편소설(남해는 잠들지 않는다)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남해FM은 91.9MHz로 내년 초에 개국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강영훈/기자

진주시 수출기업협의회, 'LH 해체 반대'국회 앞 1인 시위

경남진주 혁신도시 지키기 범시민 운동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LH 해체 반대 상경 릴레이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 수출기업협의회는 26일 국회 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날 진주시 수출기업협의회는 "수출의 밑바탕인 지역경제를 뒤흔드는

정부의 결정에 결사 반대한다"며 올바른 LH 개혁과 혁신을 호소했다.

상경 시위에 참여한 송근호 회장은 "지역 균형발전과 경남진주 혁신도시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방적인 LH 해체안에 반대하며, 국가와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등 다양한 집단과 논의한 합리적인 개

혁안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투쟁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 수출기업협의회는 지난달 3일 궐기대회 이후, 'LH 해체 반대 차량 스티커 붙이기 운동'을 비롯한 범시민 LH 지키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최광용/기자



신규 임용 소방공무원 힘찬 '첫 걸음'

4주간의 관서실습 후 재난현장 최일선 배치



거창소방서는 26일 서장실에서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신

규 소방공무원 4명에 대한 '신규 소방공무원 임용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병철/기자

이번 신규 임용자는 소방공무원으로서의 능력배양을 위해 중앙소방학교에서 12주간의 화재진압·구조·구급 실무에 관한 교육 수료 후 임용되었다.

앞으로 신규 소방공무원 4명은 개별 직무교육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 배양을 위해 4주간의 관서실습 교육을 받은 후 재난현장 최일선인 119안전센터에 배치돼 지역민 안전을 위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순욱 서장은 "소방공무원으로 첫 출발을 시작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한다."라며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거창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울산과학관,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 '슬기로운 과학생활'

울산과학관(관장 박용완)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이해 오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슬기로운 과학생활'이라는 주제로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과학, 메이커·발명, 전시, 천체 등 4개 부문 15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여름방학을 의미 있게 보내려는 학생들에게 즐겁고 알찬 체험을 제공할 것이다.

과학 분야에서는 과학이 놀자! 유아 특별프로그램, 재미가득과학놀이터, 가족과 함께하는 과학실험교실, 고교 동아리와 함께하는 과학이론교실 등 과학에 대해 관심과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전시 분야에서는 김현선 작가의 '일 리스트 & 도자기'작품전을 선보인다.

메이커·발명 분야에서는 로봇댄스 공연, 메이커 체험교육의 날, 울산메이커교육센터 방학특별프로그램, 온라인 메이커교실, 토요발명교실, 여름방학 특별 발명교실 등 과학 원리를 실생활에 활용해보며 과학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융합과학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천체 분야에서는 품동 영상 상영회, 과학영화교실(평일, 주말), 별자리 우주여행, 가족천체체험교실 등 천문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4개의 프로그램이 별빛천체투영관, 천체관측실에서 운영된다.

김기현/기자



부산시,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병원 8개소 추가 확대



부산시는 8월 1일부터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병원을 확대 운영한다.

부산시는 부산시 거주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및 배우자 대상 무료 진료병원을 기존 부산의료원 1곳에서

권역별 8개소를 추가한 9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지정되는 병원은 ▲구포부민병원(북구) ▲기장병원(기장군) ▲부산성소병원(남구) ▲부산합찬병원(동래구) ▲서호병원(수영구) ▲세웅병원(금정구) ▲중앙U병원(사하구) ▲효성시티병원(해운대구) 8곳*이다.

부산시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및 배우자는 지정병원 9개소 이용 시 가구당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올해 추경예산 2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지원병원을 확대하였고, 이를 통해 기간 저조했던 독립유공자 유족의 이용률을 높여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2006년 사업 추진 이후, 15년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병원을 부산의료원 한 곳으로만 지정, 운영하여 고령 유족들의 접근성이 낮아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시는 금번 8개소 확대를 시작으로 올 연말 국가보훈처에서 추가 지정 예정인 위탁 의료기관까지 부산시 지원병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어떤 지원이라도 독립유공자의 헌신에 비해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나라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다해야 할 것"이라며, "독립유공자 유족들의 생활 안정과 예우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에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궁영기기자

하동소방서, 신규 소방공무원 6명 신고 및 환영식...실무교육훈련 후 배치

경남 하동소방서는 지난 26일 오전 2층 소회의실에서 신규임용 소방공무원 6명에 대한 인사발령 신고 및 환영식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임용된 소방사 시보 6명은 김익태(일반소방), 김운찬(일반소방), 박태준(일반소방), 노성재(일반소방), 정현우(소방학과), 조정현(일반소방)으로 이들은 앞으로 소방서에서 4주간 화재 등 사고현장에 완벽히 대응하기 위한 실무교육훈련을 받게 된다.

이 과정을 모두 마치면 최일선 부서인 119구조대 및 119안전센터로 배치돼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현장소방임무를 수행한다.

조현문 서장은 "신규임용을 소방서 전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하고 하동소방서 전입을 환영한다"며



"실무교육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각자 배치되는 근무지에서 청렴과 봉사로 군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익산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 검사 '권고'

익산역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 외국인 근로자 수도권 방문자 등 검사 권고



익산시가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 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권고하고 나섰다.

특히 시는 수도권 확산세가 비수도권까지 이어지면서 일상생활 방역 수칙 위반 사례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하는 등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방역에 고삐를 당긴다.

이진운 보건소장은 24일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확진자 현황과 방역 추진 대책에 대해 설명하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익산시는 지난 22일부터 외국인 사적 모임과 관련해 총 16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고 비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19 차단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보건소와 익산역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지역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수도권과 타 지역 방문자에 대한 검사도 진행하고 있다.

시는 모든 외국인은 일반 시민들과 동일하게 비자 확인 과정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줄 것을 권고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 점검도 강화했다. 시는 지난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이용객이 많은 변화가의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등에 대한 특별방역 점검을 8월 1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식당·카페·호프집·맛집·관광지 등 648곳과 유흥·단란주점 138곳으로 24시 이후 운영 여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출입자 명부 작성, 1일 3회 이상 환기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강화된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적용해 출입자 명부 작성과 소독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1회 위반 시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익산은 지난 22일부터 외국인 사적 모임에서 16명, 내국인 3명(자가 격리 중 확진) 등 총 1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최초 확진자인 506번(전북 2562번)이 외국인 전용 노래연습장에서 5명과 모임을 가진 이후 또 다른 자택 모임, 직장 동료 등을 통해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진운 소장은 "수도권 확산세가 비수도권까지 이어지면서 연일 1천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며 "타지역 방문을 최소화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는 근로자들이 의심 증상이 없어도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전했다.

이선수/기자

군산, 거리두기 3단계 격상 - 휴가철 코로나19 확산 주의



군산지역의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8월 8일까지 3단계로 상향된다.

25일 강임준 군산시장은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이 거리두기가 4단계로 연장되고 휴가철을 맞아 휴가 인구가 비수도권 지역으로 내려올 것이 예상됨에 따라 전주, 군산, 익산, 완주혁신도시의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3단계가 실시되면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되며 식당, 카페는 22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유흥시설은 시설면적 8㎡당 1명, 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22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행사, 집회도 50인 이상은 금지된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9일째 네자릿수를 유지하고 있고 군산 또한 이달들어 25일 현재 55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64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엄중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코로나19 관련 휴

가철과 맞물려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지역으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시는 휴가철을 맞아 방문객이 집중되는 휴양지, 해수욕장 등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야간에 음주를 금지할 계획이다.

강 시장은 "이번 4차 유행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고 고통스러운 방역 조치를 실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여행, 약속, 이동을 최대한 줄여주고 수도권에서 온 방문객과의 만남을 자제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지켜주시는 시민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확산 방지와 위험을 예방 할 수 있는 최선책인 만큼 예약날짜에 맞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현태/기자

전라북도 송지사, 시장·군수 긴급 방역대책 회의, 적극적 방역 당부

외국인 등 방역 홍보 강화, 적극적인 진단검사 권고 등, 4가지 실천과제 강조

전라북도는 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에 대해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약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고, 정읍 등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하던 나머지 11개 시군도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7월 25일(일) 중대본 합동 영상회의에서 비수도권 확진자가 4주째 증가 추세로 수도권 4단계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로 비수도권도 4차 유행이 본격화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은 53.7%로 한달 전에 비해 24.3% 증가하였고, 이중 전파력이 높은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은 44.7% 증가해서 48%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더 확산될 경우 역학대응으로 통제가 어려우므로 정부는 선제적으로 거리두기를 강화하여 4차 유행을 통제하고자 비수도권 전체에 대한 3단계 격상을 강력 권고하였다.

이에 전라북도는 잦은 행정명령으로 인한 도민 방역수칙 혼란, 행정 신뢰도 저하와 소상공인 영업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을 이유로 신중한 판단을 정부에 요구하였으나, 정부가 전국적으로 동일한 거리두기 격상으로 신속한 유행차단을 해야 일상회복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강력히 주문하여 이를 수용하였다.

또한, 정부는 현재 비수도권 동일

하게 4명까지로 제한한 사적 모임을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약 2주 연장해서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통제가 가능하다고 동참할 것을 요청하였다.

결론적으로 전라북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에 대해 7월 27일(화)부터 8월 8일(일)까지 약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고, 정읍 등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하던 나머지 11개 시군도 2단계로 격상, 도내 전역에 대한 4명까지로 제한한 사적모임도 8월 8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송하진 지사는 25일 대통령이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참석에 이어 도내 시장·군수와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상황이 전국적으로 4차 유행에 진입하면서 전북지역도 7월 들어 확진자가 증가하고 각종 방역지표들도 악화되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지금의 상황을 진단했다.

지난 6월 하루 평균 4.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다가 7월에는 10.5명을 웃도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데다 감염재생산지수도 6월 평균 0.94에서 7월 1.2로 증가하여 지역 감염 확산 유행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변이바이러스도 7월 24일 현재 131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타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1.64배 높은 델타형 변이가 26건으로, 역학조사 등 현장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

며,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도 증가 추세인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송 지사는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도내 거주 외국인 방역 동참 당부 ▲학원·교습소 등 하절기 밀집시설에 대한 점검 강화 ▲수도권 주기적 왕래자 등 타지역 방문자 적극적인 진단검사 시행 ▲방역수칙 준수, 이동과 만남 자제 등 4가지 과제의 적극적인 시행을 당부했다.

송 지사는 "최근 외국인 환자발생 사례 방지를 위해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관련 시설에 사적 모임 제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적극 안내할 필요가 있다"며 "도내 외국인 통·번역사 단톡과 외국인 커뮤니티, SNS를 통해 홍보하고 농업·건설업·제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도 적극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방학철, 학원·교습소 등 밀집환경 조성에 따른 방역관리자 지정, 환기와 소독 등 방역수칙 점검을 강화하고,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합동점검 지원 요청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시군에 당부했다.

송 지사는 이어 "방학기간 특강, 수능 준비 예체능 레슨 목적 등으로 비수도권 방문자에 대한 주기적 검사를 시행토록 교육청에 요청"하고 타 지역을 방문한 도민, 타 지역에서 온 방문자도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 그리고 확진자 조기 발견



과 무증상자 전파 차단을 위하여 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적극적인 임시·이동식 선별진료소 설치를 요청했다.

또한 "어려운 매일수속 기본이 중요하다"며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거리두기 격상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이동과 만남 자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가급적 삼가하고 가급적 집에 머무르기"가 도민 일상에서 실천되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당부했다.

송 지사는 "현재 전국적인 유행 상황은 지금 막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예상되는 중요한 시점"으로 그 무엇보다 방역이 우선이다"며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현 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적극적인 실천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해 일상을 회복하자"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완주 혁신도시 27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적용...방역수칙 현장점검 강화한다

완주군이 정부와 전북도의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완주 혁신도시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 동안 거리두기 3단계를, 혁신도시 이외의 지역은 2단계를 각각 적용해 기본방역수칙 적용 등 현장점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25일 오후 영상회의실에서 20개 실과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와 전북도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강화 방침과 관련한 '사회적 거리두기 현장점검 이행계획 회의'를 개최했다.

박 군수는 이날 회의에서 "전국적인 하루 확진자 규모가 최근 1,480여 명에 달하고, 특히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전체의 40%에 육박하는 등 계속 늘어 정부가 비수도권의 일괄 3단계 적용 등 방역 강화에 나섰다"며 "이에 맞춰 완주군도 혁신도시는 3단계를, 그 외의 지역은 2단계를 적용키로 한 만큼 행정력을 총동원해 단계별 방역수칙 준수 등을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완주군은 지난 19일부터 혁신도시는 2단계를, 혁신도시 이외의 완주 전역에 대해서는 1단계를 각각 적용하고 4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한 바 있



다. 하지만 27일부터 완주 혁신도시는 2 단계에서 3단계로, 나머지 지역은 1단계에서 2단계로 각각 격상되며, 사적 모임은 현행과 같이 4인까지만 허용되는 등 강화된 거리두기 방침이 시행된다.

완주군은 이와 관련, 부서별로 코로나19 상황과 대응책을 보고하고 지역 사회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군정의 역량을 총결집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540여 개의 사회복지시설과

170여 개의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출입자 명부관리와 방역수칙 준수 면회 실시, 시설환기와 소독, 경로당 음식물 취식금지 등을 점검하고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도 적극 안내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의 민원창구에 대해서는 2m 안전거리 안내와 민원접수대 투명 가림막 운영, 방역물품 비치, 하루 2회 주기적 환기, 예방 수칙 등 대민 홍보 강화, 마스크 착용 안내물 설치 등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90여 개의 민간체육시설의 경우 기본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불시 야간 단속도 강화되며, 산업단지 내 330여 사업장은 근무지와 기숙시설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검사를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유흥업소와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등 2천100여 위생업소는 1~3그룹과 기타 등 4개로 나눠 기본수칙과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강력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완주군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위생업소의 경우 운영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운영 중단을,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점검해 나갈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유통물류센터와 건설현장, 주택건설 현장 등에 대해서도 상시 마스크 착용과 사업장의 주기적 환기와 소독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완주군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은 지난해 29명에 이어 올해 113명 지금까지 총 142명으로 집계됐으며, 현재 자가격리자는 133명으로 집계됐다.

김광수/기자

신나는 여름방학을 위한 장수군 여름방학 문화강좌 개강

장수군청소년문화의집이 26일 관내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여름방학 문화강좌를 개강했다.

여름방학 문화강좌는 여름에 어울리는 디지털 만들기, 개성 넘치는 레진아트, 드론 기초배우기, 예쁜 글씨 캘리그라피 4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강좌는 내달 1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여름방학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여행과 체험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관내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주고자 마련했다. 참가 학생들의 안전과 방역을 위해 수강인원을 제한해 접수 받았으며, 손 소독,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금현 주민복지실장은 "코로나19

로 인해 학생들의 활동에도 많은 제약이 있는데, 이번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계기로 관내 학생들이 새로운 경험을 접해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곽승오/기자



영광군, 식품·공중 위생업소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지원

영광군은 지난 26일, 코로나19 예방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식품·공중 위생업소 1,141개소를 대상으로 안심콜(080)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안심콜"이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해당 업소에 대한 방문기록을 간편하게 남기는 서비스로 수기 명부 작성에 따른 번거로움을 줄이고 QR코드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명부관리 소홀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동선과 접촉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역학조사에 매우 유용하다.

안심콜의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식품·공중위생업소 등이 안심콜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비용 때문이다. 방문객이 안심콜을 사용하면 사업

주에 1건당 4,82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공중위생업소 등에 부담을 덜고자 영광군은 코로나19 상황 종료까지 안심콜 서비스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안심콜 서비스를 통해 식품·공중위생업소의 효율적 방역관리와 역학조사는 물론 방문객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심콜을 통한 출입관리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김영만/기자



권오봉 여수시장, '여수시민 긴급 이동 멈춤' 동참 호소

구례군, 행안부 주민생활 혁신 지원사업 선정 특별교부세 2천만원 확보

7월 26일 ~ 8월 1일 일주일간 긴급 이동 멈춤 시행

여수시가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7월 26일 0시부터 8월 1일 24시까지 일주일간 긴급 이동멈춤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25일 영상 브리핑을 통해 "지난 한 주간 우리시 일일 평균 확진자는 10.28명으로 4단계 기준인 11.2명에 거의 압박해 있다"면서, "시민 여러분께 많은 불편과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는 4단계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현행 거리두기 3단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내일부터 일주일간 여수시민 긴급 이동멈춤 주장을 시행해 감염 확산을 막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우리시는 지난 5월 17일부터 23일까지 1차 긴급 이동멈춤을 통해 확진자를 조기에 차단했던 경험이 있다"면서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외출과 모임 등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줄여주시고, 실내 환기와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함은 물론, 특히 사우나, 스포츠센터, 유흥시설 등 실내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 이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면서 "긴급 이동멈춤 주간에는 남



만포차 운영을 중지하고 해수욕장은 18시 이후 폐쇄한다",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도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25일 12시 현재 해외유입 27명 포함, 총 35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중 7월 들어 발생한 확진자만 134명이다.

7월 초에 목욕장 관련으로 16명이 발생했고, 수도권 및 타지역 확진자

접촉이 97명으로 이중 유흥업소 관련이 9명, 요가학원 관련 6명, 여천초 병설유치원 관련 31명, IT 업체 관련 25명, 기타 접촉이 26명으로 나타났다. 그 외 유증상에 의한 자발적 검진자 19명, 해외 유입이 2명이다.

목욕장 관련 감염은 지난 2주간 추가 발생자가 없다. 여천초 병설유치원과 관련은 가족을 중심으로 소수

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자가 격리중인 어린이와 동반 입소중인 부모가 대부분이어서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위험요인이 있는 경로는 유흥업소와 요가학원 관련 감염이다. 유흥업소는 특성 상 접촉자 파악이 어렵고, 요가학원은 이동 동선이 많아 추가 감염 우려가 높다.

여수시는 유흥업소 발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지난 23일 유흥시설·노래연습장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 19 일제검사 행정명령을 내리고, 해당시설 방문자에 대해서도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현재는 하반기 전 국민 70% 예방접종을 달성하기 이전에 최대의 고비"라면서 "긴급 이동멈춤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진입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하시고 반드시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7월 들어 3만 4천 580건의 검체검사를 실시하고, 현재 1천979명이 자가격리 중이다.

이남출/기자

전남 구례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1 주민생활 혁신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천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구례군은 '섬진강으로 마실 나온 지리산 미니정원'이라는 사업으로 공모에 도전해 당선됐다.

군은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도심 속 미니 정원을 꾸미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원예치료 방식을 도입하고, 미니 정원 전시회와 공모전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사업들을 계획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최근 중앙정부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개발하고 맞춤형 재정지원을 늘려나가기 위해 공모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구례군은 이런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정책 혁신팀을 신설하여 각종 공모사업에 대응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주민 생활불편 해소 및 개선, 재난·재해 예방, 상하수도 정비, 환경보호 분위기 확산, 관광활성화 등 각종 분야의 공모에 도전해 2021 상반기에 공모사업 27건 1,120여 원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주민 생활 불편 해소 및 개선 분야에서 선정된 공모사업은 ▲중심시가



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458억 원 ▲가족센터 건립 30억 원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30억 원 등이다. 재난·재해 예방 분야에서는 ▲선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340억 원 ▲신월지구 급경사지 정비 60억 원을 확보했다.

환경보호 분위기 확산 분야에서는 지리산 반달곰 홍보관 건립 및 생츄어리 조성 242억 원, 상하수도 정비 분야에서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 370억 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32억 원 등이 선정됐다.

김순호 군수는 "과거에는 정부에서 발굴한 정책을 확실히 집행하는 기능에 충실했지만 최근 지방자치체가 성숙하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의 중요성이 증가했다"며 "구례군은 부족한 자원 확보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의 발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정부 공모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상홍/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집중호우 수산양식 피해복구 현장 살피

광주전남 북부권(광주 북구·광산구, 전남 장성군·담양군)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24일 진도 청룡어촌계 방문해 "신속 복구·피해 지원책 마련" 약속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4일 진도를 방문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산양식 분야의 복구 현장을 살피고, 시름에 빠진 어업인을 위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남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수산양식 피해지역의 복구 상황을 파악하고, 어업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는 지난 12일과 17일 강진 등 수산피해 현장방문에 이어 세 번째로 나섰다.

김 지사는 진도군에서 가장 피해가 큰 청룡어촌계를 방문해 복구현장을 둘러본 후 피해 어업인을 위로했다.

어업인들은 "전북 치패 입식비 지원, 가두리 그물망 설치사업 등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하루 빨리 피해복구를 마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어업인들이 요구한 사업들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자연재해를 대비할 수 있는 어장재배치 등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해 피해지역에 우선 지원하고, 전복 판로 확대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지역의 신속한 피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청와대, 김부겸 국무총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부와 정치권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건의했다. 이같은 결과 지난 22일 장흥강진해남 등 3개 군과 진도군의 4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어업인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치패 입식비 지원을 건의, 23일 정부추경에 국비 20억 원을 최종 반영시켰다. 한편 지난 5일에서 8일까지 진도



460mm를 비롯해 강진 392mm, 장흥 390mm, 보성 388mm 등 남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려 도내 5개 시군, 264어가에서 696억 원의 수산피해가 발생했다.

김영안/기자

광주시 북구와 광산구, 전남 담양·장성군 등 광주·전남 북부권 4개 단체장이 상생발전의 청사진 마련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25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23일 문인 북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최형식 담양군수, 유두석 장성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회장 문인 북구청장)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서 4개 자치단체장은 ▲첨단3지구 행정구역 조정 ▲상생발전 대선공약 발굴 ▲각종 현안사업 공동대응 등 광주전남 북부권의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첨단3지구 개발 관련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및 생활권 불일치로 발생할 수도 있는 주민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경제조정안에 공감하고 '첨단3지구 행정구역 조정 TF'회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로 했다.

또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대선 공약을 발굴하고 광주시와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업은 '빛고를 생활권 행정협의회'를 통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상생발전협의회장인 문인 북구청장은 "광주전남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는 소통과 상생이라는 대명제 아래 지역발전에 뜻을 함께하는 협업체"라며

"앞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공동 협력체계를 견고히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는 광주 북구·광산구, 전남 담양군·장성군 등 4개 지자체가 경제·산업,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교류·협력하기 위해 2019년 1월 발족했으며 현재까지 총 4회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한전공대 첨단3지구 유치 등 굵직한 안건들을 논의했다.

김덕윤/기자

모두를 위한 안전벨트, 양쪽 귀에 걸어주세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함께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세요.



충북 상하이사무소! 코로나시대에 對중국 무역의 교두보 역할 충실

상반기 화상상담회 개최로 수출상담 2,623천달러, 수출계약 800천달러 달성



충북 상하이사무소가 對중국 무역의 교두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상하이사무소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의 여파로 세계교역이 위축된 가운데에서도 그동안 구축한 중국 내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도내 기업의 진출 및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했다.

특히 도내 기업들의 중국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도내 기업의 안정적인 중국 진출을 위해 중국 내 50여 개 정부·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이에 지난 2019년 1,000여명이었던 중국 내 현지 바이어 수가 자체 발굴을 통해 3,000여명까지 증가하며 중소기업의 수출증대 및 기업의 자력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 안테나숍 사업을 통해 발굴한 도내 우수 제품들이 중국내 278개 마트에 입점·판매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함께 도내 우수제품(홍삼제품, 면류 등 33개 품목)에 대한 개별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내 중소기업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고자 중국 교류지역(상하이·항저우)과의 화상 상담회를 개최해 800천 달러(약 9억원) 수출계약 체결을 도왔다.

화상 상담회에는 식품, 화장품, 소비재 등을 생산하는 10개 도내기업과 중국 바이어 44개사(상하이 22개사, 항저우 20개사)가 참여해 130건, 2,623천달러(약 29억원)의 수출상담이 이루어졌다.

특히 비대면 상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에 제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홍보를 진행해 상담 효과를 극대화했다.

이외에도 투자유치활동 강화를 위

해 하반기에는 중국내 3개 도시에서 기술교류 및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도 준비하고 있다.

황향미 충청북도 국제통상과장은 “충북 수출의 중화권(중국, 홍콩, 대만)비중이 약 50%를 점유할 정도로 도내 기업의 중국시장 확보는 매우 중요한데,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상하이사무소의 활동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앞으로 상하이사무소가 중국 진출의 전초기지로서 임지를 굳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청북도 상하이사무소는 2015년 1월 28일, 충북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상담, 바이어 발굴 등 해외마케팅 지원, 현지기업의 도내 투자유치를 위한 잠재투자자 발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상하이무역상청(상하이시 장녕구) 내에 개소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해외마케팅사업을 통해 953만 달러의 수출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 시대 對중국 무역의 교두보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최만식기자

김정섭 공주시장, “폭염종합대책 추진...취약계층 특별관리”



김정섭 공주시장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폭염대비 종합대책을 강력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김 시장은 26일 시청 대백제실에서 열린 주간업무보고회에서 “지난 2018년 이후 폭염도 자연재난으로 규정됐다. 올 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사망자도 나오고 있는데 시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폭염 대응체계를 특별히 재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고령·여성 농업인을 중심으로 폭염특보 상황 문자 발송과 아이스팩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등이 운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살펴봐달라고 밝혔다.

또한, 폭염에 따른 축산 농가의 어려움도 매우 큰 상황인 만큼 실효성 있는 축산 분야 대책을 수립, 발 빠르게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앞으로 3~4주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폭염 대응TF를 상시 운영하고 폭염 관련 종합 추진상황을 주 2회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무더위쉼터로 활용하고 있는 관내 경로당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냉방시스템 점검을 비롯해 코로나19 방역 수칙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등 어르신 건강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말했다.

이러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터미널 대합실, 은행, 공공기관 등을 추가로 무더위쉼터로 적극 활용하고 홍보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노약자, 홀몸 어르신, 저소득 가구, 야외 노동자 등 폭염에 가장 취약한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방안을 각 부서별로 적극 모색해 실질적 대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시장은 “폭염 시기에 선별진료소의 적절한 운영을 꾀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업무에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태안해경, 주말 갯바위 고립 및 선박전복 사고 등 구조대응에 구슬땀

일요일인 25일 새벽 갯바위 고립사고 2건 3명 구조에 이어 낮에도 소행어선 전복사고로 1명 구조 이어져

태안해양경찰서는 25일 주말 주말 야간 잇따른 해양사고 신고에 신속한 대응으로 갯바위 고립자 3명과 전복선박 1명을 모두 구조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새벽 3시 46분쯤 충남 태안군 소원면 아치네 인근 갯바위에서 47세 이 모 씨가 낚시 도중 고립돼 인근 동료가 태안해경에 119전화로 구조를 요청했다. 야간 수중 암초로 고립자 인근까지 접근한 모항파출소 연안구조정의 양현우 순경은 직접 입수해 이 씨를 구조한 뒤, 이어 도착한 민간해양구조선에 편승, 안전하게 육상으로 이동시켰다. 이 씨는 전날밤 11시에 동료와 함께 아치네에 도착해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하다 물때를 알지 못하고 차오르는 바닷물에 갇혀 그대로 고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새벽 4시 47분경에도 충남 태안군 민어도 쥐꼬리섬에 들어가 낚시하다 차오르는 들물에 갇혀 고립된 39세 동갑 김 모 씨와 가 모 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학암포출소 연안구조정에 구조되기도 했다.

또, 이날 낮 11시 47분경 충남 태안군 석도 인근 갯바위에서 사람이 고립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태안해경 상황실은 태안해경구조대를 현장에 급파하는 한편, 인근 낚시어선 가운호 선장에 수색협조를 요청했다.



64세 정 모씨는 이날 소행 선외기 선박을 타고 석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하다 너울성 파도에 맞아 배가 뒤집혔다. 사고 직후 정 씨는 인근 석도 갯바위로 헤엄쳐 올라 손을 흔들며 지나는 선박에 구조를 요청했다. 때마침 멀리서 지나던 낚시어선 팀스카이호 선장이 우연히 정 씨를 발견해 어선 VHF통신망으로 태안해경에 즉시 신고했다. 한편, 태안해경으로부터 수색 협조 요청을 받은 가운호 선장 이 모 씨(38세)는 낚시 손님의 양해를 구한 뒤 주변을 수색하다 갯바위에 올라 구조를 기다리던 정 씨를 발견해 구조했다. 12시 33분쯤 현장에 도착한 태안해경구조대

는 바다로 입수해 반쯤 잠긴 채 전복된 사고선박의 해양오염 예방 조치 후 예인토목 조치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폭염이 계속되는 요즘 바다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관련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 만큼 촉각을 세우고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바다에서는 유사 시를 대비해 구명조끼 착용 등 필수 안전장구를 반드시 갖추고, 물 때 확인에 따른 안전장소 이동, 119나 해로드 스마트폰 어플 활용 신고요령 숙지 등 생명보호 안전수칙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재은기자

당진시, 소비자 위한 안전한 먹거리 기반 구축에 팔 걷어



당진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을 위해 시 자체 품질 인증 기준을 마련, '당진시 로컬푸드 인증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당진시 로컬푸드 인증제'는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가공한 제품을 대상으로 시 자체 기준에 따라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인증 대상은 GAP(우수농산물 인증) 잔류농약 허용 기준 이하이면

서 유기합성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농산물이며, 축산물은 무항생제·유기축산·HACCP 인증을, 수산물은 MSC·ASC 인증을 받은 경우이다.

또 가공품은 당진시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축·수산물을 원·부재료로 50% 이상 함유해야 하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이 대상이다.

인증 기준에 적합한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에는 '해나루 당진 로컬푸드'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이라는 것을 뜻한다.

송준천 농업정책과장은 “각종 식품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이 요구되고 있는 시기”라며 “당진시 로컬푸드 인증제 도입을 통해 우리시 안전 먹거리 기반 구축에 한걸음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유성구, 코로나 19 위기극복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100% 완료

대전 유성구는 소상공인 육성 및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6월 7일부터 6월 20일 공고, 6월 21일 접수 절차로 진행된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규모의 자금을 집행했으며, 435개소에 75억 원의 특례보증을 완료했다.

신청결과 평균보증금액이 1720만 원이며, 2000만 원 전액 지원업체 311건(71%)으로 전년 대비 14% 상승해 업체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지원업종으로는 음식·숙박업 141건(32.2%) 도소매 125건(28.9%) 개인서비스 40건(9.2%) 운수 29건(6.7%) 부동산 25건(5.8%) 등 순으로 지원했다.

중·저 신용자의 지원 확대를 위해 1, 2등급 지원을 배제했으며, 3등급(18.6%) 4등급(37.5%) 5등급(17%) 7등급(58건, 13.3%)으로 저신용자들의 보증지원 혜택이 확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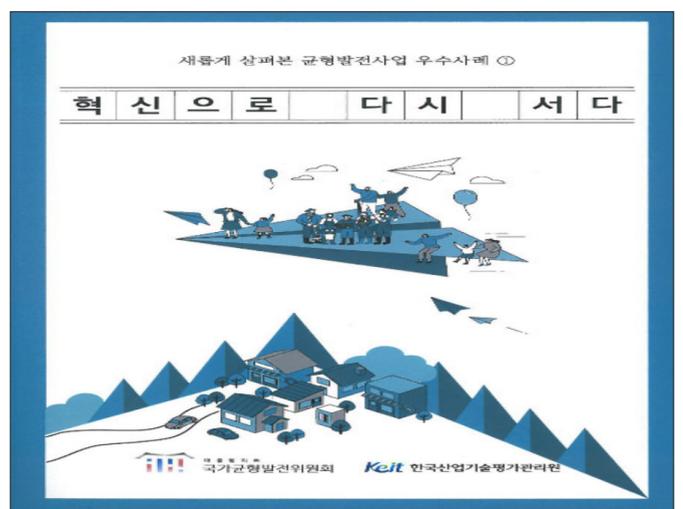
대전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한도액은 유성구 출연금의 15배(75억 원)로 1개 업체당 20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앞으로 유성구는 소상공인에게 보증수수료와 대출이자 2%를 2년간 지원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소상공인 경영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증평군, 10년 국가균형발전 우수사례 30선에 2개 사례 선정



증평군이 추진한 균형발전사업 2개 사례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간한 '새롭게 살펴본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책자(2권)에 실렸다.

균형위는 이번 우수사례집에서 균형발전 사업 평가 10년을 맞아 지금까지 선정된 2백여 개 우수사례 사업 중 최종 30개 사례를 뽑아 재조명했다.

우수사례집 제1권 혁신으로 다시 서다에 실린 '대한민국 미래를 느껴 보고 싶다면 증평에 가보라!'는 마을 리더를 양성하고 인재를 키우는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담고 있다.

이어 제2권 '공동체로 길을 찾다'에는 '점-선-면 혁신을 통한 타운형 도서관으로 문화 부흥을 이루다'가 실렸다.

증평군립도서관을 본래의 기능을 넘어 복합공간으로 만들어 예산은 줄이고 활용도는 높인 점, 바로 옆에 자리 잡은 김득신문화관과 청소년문화의 집(건축 중)등과 연계해 문화적 접

근성과 집중도를 높인 점 등을 소개했다.

균형위는 2011년부터 해마다 1천여 개가 넘는 균형발전 사업을 평가해 20개 우수사례를 선정해 지금까지 총 2백여 개 사업을 시상했다.

군은 △2014년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2015년 김득신 스토리텔링 농촌 만들기 △2016년 지역역량강화 △2017년 도서관 아고라광장 프로젝트 △2019년 3농(농업, 농촌, 농민) 3안(안전, 안심, 안녕) △2020년 생활SOC 연계한 민·관 협치형 역량강화 6회 균형발전 사업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군의 균형발전 우수사례 6회 수상은 전국 최초이자 전국 최다인 진기록이다.

홍성열 군수는 “증평군의 균형발전 우수사례는 6회 수상이 끝이 아니라 올해 7회 수상 도전으로 전국 최다 수상의 진기록을 이어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최만식기자

'이유 있는 1위' 김포 고정운 감독 "우린 사위일체의 팀"



프런트, 서포터즈까지, 사위일체(四位一體)의 팀"이라고 표현했다. 7연승을 달리며 예상치 못한 상승세를 보였던 김포FC는 15라운드에서 김해시정축구단에 패하며 연승행진을 멈췄으나, 6월 30일 FC목포와의 전반기 마지막 경기(17라운드)에서 2-1로 승리하며 9승 3무 3패, 승점 30점 1위로 전반기를 마무리했다. 지난 시즌 8위에 그쳤던 김포시민축구단이 전반기 1위의 김포FC로 완전히 변모한 데는 그럴만한 이유들이 있었다.

하나, 공격수부터 수비, 모두가 많이 뛰는 축구. 축구팬들에게 '적토마'로 잘 알려진 고정운 감독은 지난 시즌부터 김포FC를 맡아 지휘했다. 고 감독은 작년과 다른 전반기 성적에 대해 "우리는 스타플레이어도 없고 또 특출한 골잡이도 없다. 모든 선수들이 골고루 맡은 바를 열심히 소화해 준 것이 전반기 1위를 달린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포FC는 2, 3위 팀에 비해 득점이 5-6골 적다. 하지만 15경기 10실점으로 최소실점을 자랑한다. 무실점 경기가 무려 10경기다. 고 감독은 "시즌 전 전지훈련 때부터 선수들에게 많이 뛰는 축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고 감독이 말하는 '많이 뛰는 축구'는 공격수부터 전방에서 수비에 가담하는 것이다.

고 감독은 "앞에서부터 압박을 해줘야 수비가 편하고, 밑에서부터 빌드업을 해줘야 공격수가 편하다.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축구는 수비와 공격의 구분이 딱히 없다. 스트리퍼와 두 명의 미드필더가 가능한 수비에 많이 가담해야한다. 모든 선수들이 90분 동안 많이 움직이며 전체적으로 수비와 공격의 밸런스가 잘 맞아떨어졌다"며 무실점 비결을 설명했다. 수비에서 시작되는 공격 전개와 공격에서 시작되는 압박 수비가 전반기 1위의 원동력이 됐다.

"많이 뛰는 축구"와 함께 고 감독은 선수들에게 "빠른 템포의 축구"를 요구한다. 그는 "K3리그 팀 중에 우리 팀만큼 90분 동안 전방 압박을 하고 빠른 템포를 유지하는 팀은 없다고 자랑한다. 대학 팀과 연습경기를 자주 가졌는데, 상대 지도자들이 K3리그 팀 중 템포가 굉장히 빠르다는 이야기를 종종 한다. 전원 수비, 전원 공격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둘, 선수들이 마음껏 춤출 수 있는 환경

앞서 고 감독은 요구한 전술을 100% 소화해내는 선수들을 칭찬했지만 "선수단만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모두 다 잘 풀리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힘주어 말했다. 김포FC의 선수들이 고 감독의 전술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배경에는 프로 구단 못지않은 김포FC의 인프라가 큰 몫을 하고 있다.

김포시는 '축구도시'를 꿈꾸는 중장기 프로젝트의 시작으로 기존 김포시민축구단을 비영리재단법인 형태인 김포FC로 전환해 2021년 1월 4일 새롭게 출범시켰다. 김포FC의 선수들이 고 감독의 전술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배경에는 프로 구단 못지않은 김포FC의 인프라가 큰 몫을 하고 있다.

K3리그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김포FC의 인프라에 대해 고 감독은 "(성적과 관련해) 사실 이 부분이 제일 크다고 본다"며 웃을 땀다. 그는 "팀이

법인이 됐고, 시에서도 훌륭한 운동장을 비롯해 프로에 준하는 여건들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굉장한 동기부여가 됐다. 김포FC 선수들은 큰 팀에 있었던 선수들이 아닌 선수로서 배고픔을 많이 아는 선수들이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더 효과적으로 나타났고 본다. 선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마련됐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마음껏 춤을 추며 기량을 발휘한다"고 말했다. 선수들의 간절함과 훌륭한 인프라 사이의 시너지 효과인 셈이다.

셋, 끈끈한 유대관계
고 감독은 "김포FC가 생긴 지 몇 달 안됐지만 구단 직원들, 코칭스태프들, 선수들과의 유대감이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수단이 원하는 것을 사무국에서 잘 들어주며 선수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 처음 김포FC가 생길 때 허영일 대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뿌리듯 단단히 잘 잡아줬다. 이렇게 선수단과 구단 직원들 간의 손발이 맞아 같이 가는 팀과 그렇지 않은 팀은 천지 차이이다. 이러한 유대관계가 경기력에 반영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FC 내 여러 주체들 간의 유대관계가 김포FC의 호성적에 유효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팀 내 유대관계는 팬들에게도 전해진다. 고 감독은 "구단 프런트는 좋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우리 선수단은 좋은 경기력을 보인다. 빠른 공격축구로 재밌는 경기를 하던 처음에는 한두 명의 팬들이 와서 '이게 뭐지?' 하며 호기심을 가지다가 점차 내 팀이라는 소속감을 가진다. 이것이 지속되면 자연스럽게 팬층이 두터워지고, 팬들의 응원은 더 좋은 경기력으로 이어진다. 이렇듯 각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해내며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모든 스포츠 경기는 관중 수용이 제한되고 있다. 김포FC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의 30%만 입장이 가능할 때, 많은 시민들이 경기장을 찾아왔다가 다 들어가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다. 그만큼 팬 층이 두터워진 것이다. 더불어 최근 김포FC는 공개 채용을 통해 이유목 신인 사무국장을 임명하며 더욱 체계적이고 원활한 대내외적 의사소통을 꾀하고 있다.

넷, 달라진 위상에 걸맞은 큰 목표
5월에 만났던 고 감독은 당시 김포FC가 K3리그의 약팀이라는 인상을 벗어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직 전반기만 끝난 상황이지만 이미 김포FC는 약팀이라는 인상을 벗어났을 뿐 아니라 K3리그에서 공공의 적(?)이 됐다.

이제 대해 고 감독은 웃으며 "이제는 약팀이 아니라 다른 팀들의 타깃이 됐다. 시즌 전에는 아무도 우리가 1위를 달릴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후반기에는 보다 많은 경계를 받으며 힘든 경기들을 치르게 되겠지만, 지금도 선수들은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 인프라, 복지 등이 좋아지면 더 좋아졌지 떨어질 팀은 아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한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김포FC의 달라진 위상은 선수 영입에서도 드러난다. 김포FC는 이번 휴식기 동안 수비수 이철찬(대전하나시티즌), 공격수 조항기(서울이랜드FC), 한의혁(FC안양), 미드필더의 송진규(안산그리너스) 등 포지션별로 알찬 보강을 했다. 고 감독은 "올해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선수들이 전반적인 환경과, 성적을 보고 오려고 한다. 작년과 달리 선수들이 오고 싶은 팀으로 변모했으니 굉장히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24일 재개되는 K3리그를 기다리는 김포FC는 이 부흥이 반짝 돌풍에 그치지 않고 큰 목표를 향한 성장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완전한 프로 구단으로서의 성장이다. 고 감독은 "우리의 비전은 결국은 K3리그에서 K리그2로, 그리고 또 K리그1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2020년 팀에 처음 부임했을 때부터 했던 말이다. 지금은 하나하나 천천히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이라며 웅대한 포부를 밝혔다.

전순희기자

칠곡군, 이웃에 봉사해 달라는 유언 남기고 별이 된 백혈병 투병청년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나는 밤하늘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히자"
고교 친구들에게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는 꿈을 대신 이루어 달라는 유언장을 남긴 청년이 하늘에 별이 됐다.

2017년 백혈병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이어오던 고(高) 유준범씨는 22일 오후 삼성 서울병원에서 향년 21세의 꽃다운 나이에 눈을 감았다. 빈소는 유 씨가 태어나고 자란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유 씨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독거 어르신 돕기에 동참하고 항암 치료를 위해 입원한 소아암 병동에서도 백혈병에 걸린 아이들을 돌보며 그림 그리기 등의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또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백혈병 환우들을 돕기 위해 매달 일정액을 기부하며 타인을 위해 살겠다는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최근 병세가 악화되자 마지막을

예감한 유 씨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다하지 못한 봉사를 대신해 줄 것을 당부하는 유언장을 남겨 큰 울림을 주기도 했다.

이날 유 씨의 고등학교 선배인 백선기 칠곡군수가 가장 먼저 빈소를 찾아 유가족과 아픔을 함께했다.

백 군수는 "송고하고 고귀한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 너무 안타깝다"며 "고인이 마지막 순간까지 간조했던 나눔과 이웃사랑 정신의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가족들의 손을 잡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백 군수를 시작으로 지인들과 친구들의 조문이 본격적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군복을 입은 현역 사병이 장례식장에 들어서자 빈소는 눈물바다로 변했다.

그는 유 씨와 가장 가까운 친구로 조문 후 즉시 복귀한다는 조건으로 부대장의 승인을 얻어 경기도에서 승용차로 5시간을 달려왔다.



5분도 걸리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조문을 마치고 바로 부대로 복귀해 지켜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유 씨는 지난 24일 가족들과 친구들의 애도 속에 화장 후 성주 삼광사 추모공원에 안치되어 영면에 들었다.

아버지 유희선씨는 "아들은 자신의 소원처럼 밤하늘에 별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출 것"이라며 "함께 슬퍼해 주시고 추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아들의 뜻대로 봉사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전했다.

김세기기자

대전 서구 공무원노동조합, 제3대 류인규 위원장 선출



대전 서구 공무원노동조합은 제3대 위원장에 류인규 현 위원장이 재선출됐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2일 실시된 선거에서 류인규 위원장은 단독으로 출마해, 전자 투표로 이뤄진 표결에서 90.8% 찬성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류 위원장은 그동안 후생복지, 근무여건 개선 등 조합원 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과 근무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에 앞장 서 왔으며,

현재는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제8대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류 위원장은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한 분의 의견도 소홀함 없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대변할 것이다"라며, "대화와 소통을 통해 조합원들과 함께 밝고 희망찬 서구를 열어 가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고정화기자

경주시, 6·25 유공자에 화랑무공훈장 전수해

오국영용 2인 유족들에게 무공훈장과 훈장증, 기념패 전수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난 22일 6·25 전쟁 당시 무공을 세운 2인의 유족들에게 무공훈장과 훈장증, 기념패를 전수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정택 50사단 경주대대장도 참석해 감사의 마음을 담은 꽃다발을 증정하며 자리를 빛냈다.

화랑무공훈장은 전투에 참가해 용감하게 싸우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전과를 올린 유공자에게 수여된다.

수훈자인 故 이상원 일병(제1보병사단)과 故 박대진 상병(제2보병사단)은 전공을 세워 훈장 수여가 결정됐으나 훈장을 받지 못하고 1951년과 1952년에 각각 전사했다.

유족들은 "이제라도 훈장을 통해 고인의 명예를 높여 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소



감을 밝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호국영웅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며, "보훈가족의 명예 신앙과 복지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정택 경주대대장도 "송고한 희생정신을 이어받아 국가 수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한반식기자

'박상혁 결승골' 김천, 안산에 1대 0 승... 단독 선두 등극!

김천이 안산 원정에서 박상혁의 결승골로 승점 3점을 쟁했다.

김천상무프로축구단(대표이사 배낙호)이 24일 오후 8시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2 2021' 22R 안산그리너스FC와 경기에서 1대 0으로 승리하며 첫 경기를 털 지른 안양을 제치고 선두로 올라섰다.

김천은 4-3-3 포메이션을 꺼내 들었다. 허용준-박동진-조규성이 스트리커를 맡았고 서진수-권혁규-최준혁이 2선을 꾸렸다. 포백라인은 유인수-정승현-우주성-김동민이 책임졌고 골문은 구성윤이 지켰다.

김천은 전반 시작과 함께 공격적인 분위기를 가져갔다. 권혁규, 서진수의 볼 배급을 필두로 공격을 이어오던 김천은 전반 21분, 파울 상황에서 서진수가 위협적인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며 안산의 골문을 노렸다.

전반 31분, 권혁규는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땅볼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지

만 골대 오른쪽으로 벗어났다. 양 팀의 공방전에도 득점 없이 0대 0으로 전반을 마쳤다.

후반 14분, 김천 허용준은 날카로운 슈팅으로 공격 재개를 알렸다. 후반 17분, 김천이 서진수를 빼고 박상혁을 투입하며 첫 교체 카드를 사용했다. 김태완 감독의 용병술은 이번에도 적중했다. 후반 18분, 권혁규의 크로스를 받은 허용준이 박동진에게 패스했고 이를 박상혁이 마무리하며 김천이 1대 0으로 앞섰다.

김천의 공격은 득점 후에도 계속됐다. 후반 27분, 박상혁의 패스를 받은 조규성이 과감한 중거리 슈팅을 선택했지만 골대를 강타했다. 후반 34분, 안산 카노푸의 골문 정면을 향한 슈팅은 김천 구성원 골키퍼가 몸을 던져 선방했다.

8분의 추가시간, 김천은 페널티킥을 내렸지만 안산 아스나이가 실축하며 1대 0으로 승리했다.



한편, 김천은 오는 31일 오후 8시, 김천종합운동장에서 부천FC와 '하나원큐 K리그2 2021' 23R 홈경기를 치른다. 홈경기 티켓 오픈은 26일 오전 11시 티켓링크를 통해 진행된다.

김세기기자



남궁영기자

전순희기자

인디플러스포항,서울독립영화제 순회상영회 인디피크닉2021 상영

서울독립영화제 단편 부문 수상작을 포함한 화제작 7편 상영

포항문화재단 인디플러스 포항에서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단단한 영화展 '서울독립영화제 순회상영회 인디피크닉2021'을 상영한다. 이번 상영회에서는 서울독립영화제 2020의 화제작 7편을 만나볼 수 있다.

올해로 18회를 맞는 순회상영회 인디피크닉은 독립영화의 저변확대와 지역 및 부문의 상영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전년도 서울독립영화제의 상영작을 소개해왔다. 인디피크닉2021은 총 7개의 단편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디플러스 포항에서는 7개의 섹션 중 서울독립영화제 수상작 모음인 '단편1: K-하이퍼리얼리즘'과 독립영화에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 변중희 배우에게 독립스타상을 안겨 준 '실버택배'를 포함한 '단편2: 허스토리, 귀를 기울이다'를 상영한다.

특히, 이번 인디피크닉2021에서 주목할 부문은 단편 중심으로 관객들 앞에 나섰다는 것이다. 변화된 배급 환경에서 단편영화가 관객을 만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서울독립영화제는 많은 지역과 극장들을 통해 상영의 장을 만들어서 단편영화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선한 취지와 독립영화의 새로운 활기를 위해 지역과 극장들도 동참하고 있다. '단편1: K-하이퍼리얼리즘'은 서울독립영화제2020 수상작 섹션으로 삶에서 무언가를 잃고, 유령이 되어 버린 두 연인의 일상을 표현한 단편 애니메이션스릴류(우수단편상),

엄마와의 이별에 대비해 엄마를 기록하는 딸의 이야기를 다룬 단편 애니메이션스나와 승자, 최선을 다해 살아온 평범한 사람이 인생의 끝을 재앙으로 맞이 않기 위해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스실버택배(독립스타상), 가장 친밀한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려는 사람의 이야기인스자매들의 밤, 몸이 아프고 난 후 다시 느끼는 세상을 담은 다큐멘터리스여름의 나무들 등 총 4편은 '단편2: 허스토리, 귀를 기울이다'에서 만나볼 수 있다. 여성 감독들의 감성과 섬세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 포항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지그재그 형태로 130석(50%) 제한 운영 중이며, 좌석 간 거리두기, 상시 소독, 방문자 전화등록 등 영화관 관리자·운영자 수칙을 준수하고 있다.

상영 일정과 정보는 포항문화재단 홈페이지, 인디플러스 포항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독립예술영화 통합 예매사이트 인디엔아트 시네마에서 수수료 없이 예매 가능하다.

김세기기자

'광주국악상설공연'으로 국악바캉스 떠나요

8월 첫째주 '떠나자! 시원한 국악바캉스'주제 무대 마련



광주문화예술회관은 8월 한 달간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에서 여름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신명나는 국악 공연을 선보인다.

광주국악상설공연은 시립예술단과 지역 예술단체가 참여해 전통국악, 창작국악, 우리춤, 사물놀이 등 다채로운 국악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광주 대표 브랜드 공연이다.

8월 첫 번째 주에는 '떠나자! 시원한 국악바캉스'를 주제로 코로나19로 여름휴가를 떠나지 못한 시민을 위해 실내에서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공연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먼저 3일에는 예술이 숨 쉬는 곳, 예악당이 번사극 '베틀로 춘향전'을 공연한다. 이 공연은 춘향전을 1900년대 감성과 시점의 번사극으로 표현하고 국악과 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를 접목해 시민들에게 친숙하고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국악무대로 꾸며진다.

이어 4일에는 올라타의 '뽀바람에 흥이 Ola!', 5일 창작국악단 도드리 '여행을 떠나요', 6일 루트머지 '다섯 빛깔 여름' 등이 펼쳐지며, 7일에는 향산주연 판소리보존회가 '休歌(휴가)'를 주제로 한국무용, 국악가요, 국악관현악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사한다.

20일에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이 '무더운 여름 국악축제'를 공연한다. '도라지타령'관현악 무대를 시작으로 해금으로 연주하는 뽕고음악 '댄싱 오브 더 문라이트', 생활형주곡, 관현악&연희 '판놀음II' 등 아름다운 국악선율을 차례로 만나볼 수 있다.

21일에는 광주시립창극단이 여럿이 장구를 연주하면서 발림과 가락을 선보이는 '김오재류 설장구'로 문을 연다. 또 민요 '금강산타령, 동해 바다', 단막창극 '나 토끼 아니오' 등을 공연한다. 단막창극 '나 토끼 아니오'는 판소리 수궁가의 내용을 각색한 작품으로 별주부의 뽀에 넘어가 수궁으로 들어간 토끼가 자신의 배를 가르려고 하자 자신은 토끼가 아니라며 부인하는 내용을 담은 작품이다. 마지막으로 소고를 들고 즉흥적인 춤사위의 멋을 담은 '입춤소고'로 막을 내린다.

이 밖에도 12개 단체가 국악을 주제로 매일 특색있는 공연을 준비해 관객과 만난다.

광주국악상설공연은 휴관일인 일요일과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에서 거리두기 지정좌석제(무료)로 진행되며, 매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광주문화예술회관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한다.

자세한 일정 확인과 예매는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

성현출 관장은 "여름 무더위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친 시민들이 문화 감동을 풀 수 있도록 다채로운 국악공연을 마련했다"며 "상설공연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광주의 전통예술공연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덕욱기자

부평구문화재단, 부평아트센터에서 만나는 이색 체험전시 <마녀의 초대장> 진행

부평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영훈)은 오는 7월 27일(화)부터 9월 12일(일)까지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에서 이색 체험전시<마녀의 초대장>을 진행한다. 부평아트센터에서 해마다 여름방학 시즌에 진행해 온 특별전시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동화 속에 등장하는 마녀들을 만나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이번 전시는 특별한 초대장을 받은 관객이 마녀학교에 입학해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졸업하는 콘셉트 전시이다. 마녀 학교로 연출된 각각의 공간에서 여러 마녀들의 수업 듣고, 마녀 복장을 직접 착용해보면서 마녀 세계의 신비롭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마녀의 초대장> 전시에서는 마녀 학교를 배경으로 특별한 사진도 찍을 수 있다. 동화 속 마녀들의 공간으로 연출된 전시장과 커다란 달이 떠 있는 인터랙티브 미디어를 통해 인터랙티브 미디어를 통해 색다른 경험과 다양한 인생샷 배경을 만나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마법의 정원에서 약초를 캐고, 신비한 공간에서

마법 약을 만들거나 공중에 떠 있는 마법책들에 둘러싸이는 이색적인 체험도 즐길 수 있다.

전시만으로 아쉬운 분들을 위해 마녀학교 심화 과정(유료)이 준비되어 있으며, 자연 소재를 사용해 직접 나만의 마녀 지팡이를 만드는 크래프트 아트 '마녀의 지팡이'와 크레파스와 워터 페인트를 활용해 나만의 애완동물을 컬러링 하는 '마녀의 애완동물'도 체험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7월 27일(화)부터 9월 12일(일)까지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에서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간당 입장 인원을 제한하여 운영한다.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티켓은 12,000원이다. 부평구민은 30% 할인을 받아 9,000원에 구매 가능하며, 스페셜9인데이로 매일 9일에 구매하는 부평구민은 6,000원에 예약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www.bpcf.or.kr) 또는 전화(☎032-500-2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순희기자

마녀의 초대장
우연히 당신의 손 안에 들어온 초대장 신비한 마녀학교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기간: 7월 27일 - 9월 12일
매일 11:00 ~ 19:00 / 휴관일 없음
장소: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
예매: 네이버, 인터파크, 현장
티켓: 전시관람 12,000원
아트체험 각 2,000원 (워터페인팅, 크래프트)
문의: 032-500-2000
주관: 부평구문화재단 | 아트랩

군위군, 온택트 삼국유사 웹툰·미술대회 개최

온택트 삼국유사 웹툰·미술대회
2021. 07. 26. - 08. 27. | 온택트삼국유사.com

군위군은 오는 26일부터 온택트 군위 삼국유사 웹툰·미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26일부터 한 달간 작품을 접수받으며 전국 6세에서 13세까지의 아동이면 누구나 모두 참가할 수 있다. 주제는 '삼국유사와 군위의 역사와 문화'로 이에 대해 그림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

김세기기자

나주천연염색재단, '한국천연염색지도사협회전' 개최

8월 12일까지 천연염색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156명 작가 참여 '1인 1품' 다채로운 염색 기법 선보여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은 오는 8월 12일까지 한국천연염색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사)한국천연염색지도사협회전'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색의 경계를 넘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전은 협회 소속 156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특히 천연염색 예술품이 아닌 각자 자신만의 염색기법을 천 1필(전체 156점)에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하나의 전시 공간에서 다채로운 천연염료를 활용한 각기 다른 염색·표현기법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천연염색 매니아, 관람객들에게 보다 특별한 전시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권 (사)한국천연염색지도사협회장은 "각각의 작품에는 작가명과 연락처를 표기해 관람객들이 작품에 대한 질의와 소회 등을 작가들과 나

눌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작품 활동을 활성화하고 천연염색 애호가들의 감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만기자



부산시 해양자연사박물관, 2021년 기획전 '독도가 살아있다' 개최

부산시 해양자연사박물관은 2022년 2월 6일까지 박물관 1관 2층에서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박물관과의 공동기획전 '독도가 살아있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늘 우리와 함께였던 독도의 역사와 해양 생태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오늘날 독도에 대한 불법적인 영유권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일본에 대응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증명해주는 수많은 사료를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은 독도의 해양 생태와 관련된 다양한 식물 표본과 생물감 넘치는 영상자료들도 함께 선보인다.

전시내용은 ▲1부 '독도 그리고 기록' ▲2부 '독도 그리고 바다' ▲3부 '독도 그리고 보호'에 해양생물 표본 및 독도 관련 고문서 등 150여 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시관람은 시간당 92명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예약은 방문일 하루 전까지 부산시 통합



예약시스템 '견학/체험'에서 하면 된다.

최정희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관장은 "이번 전시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독도의 역사뿐만 아니라 최근 많은 주목을 받는 해양 생태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범위를 다룬다"며, "많은 관람객에게 평소 쉽게 보기 힘든 독도 관련 생물 표본을 비롯한 다양한 볼거리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영기기자

LH, 2021년 노후임대주택 4만세대 그린리모델링 실시

15년 이상 노후 영구임대 2만8천호, 매입임대 1만2천호 리모델링

LH는 2021년 노후임대주택 4만호를 대상으로 약 5,900억원을 투입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업체 선정에 임박한 가운데 오는 9월부터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노후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15년 이상 경과된 LH 노후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단열·기밀성능 강화 등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설물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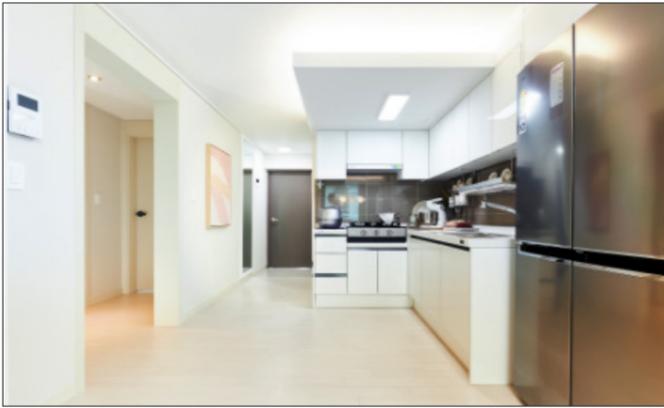
LH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노후화된 주민 생활공간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사업으로 작년 10,300호(건설 300호, 매입 10,000호)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LH는 주거공간 개선과 함께 노후임대주택의 외관 개선, 주민 커뮤니티 시설 확충 등 단지 환경 개선을 위한 'Change Up' 사업도 올해 시범 추진할 예정으로 임대주택 시설 개선 노력을 지속 중이다.

LH는 지난해 대전둔산3 등 8개 건설임대단지 300호와 매입임대 10,000호를 대상으로 719억원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시범사업으로 고성능 단열재 설치, 고효율 창호 교체 공사 등을 실시한 결과 에너지 효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뿐만 아니라, 주택 품질도 높아져 사업 완료 후 청약 접수결과, 전반적인 입주자 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그린리모델링 표준사업모델을 마련하고, 문제점으로 드러난 소음·분진



등 민원 해소 대책도 수립했다.

사업유형별 그린리모델링 적용 기술을 확정하고 설계 표준화, 친환경·에너지 요구 성능 확보를 위한 자재선정 기준, 에너지성능개선 목표량을 설정하는 등 사업 표준모델을 마련했다.

또한, 타일 비철거방식 등 소음발생을 최소화하는 공사방식을 채택하고, 공사 기간 중 외부에 입주민원 침해를 제공하는 등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도 수립했다.

LH는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는 대폭 확대해 노후 건설임대 28,135호, 매입임대 11,862호를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한다.

건설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은 크게 △세대통합 리모델링, △단일세대 리모델링으로 추진된다.

세대통합 리모델링은 공사 상태인

연접한 소형평형(26㎡) 2세대를 넓은 평형(52㎡)으로 리모델링해 다자녀가구 등에 공급한다. 세대통합·발코니확장 공사로 평형이 확대되고, LED전등·단열창호·기밀 현관문 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 성능 개선, 친환경 벽지·장판 교체로 거주 환경이 개선된다.

단일세대 리모델링은 공사 세대 또는 재임대 세대를 대상으로 빌트인가전 설치, 고성능 단열창호 설치, 친환경 자재 등을 적용해 리모델링한 후 기존세대를 재정착시키는 방식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거주상태 리모델링 공사도 실시한다. 비철거방식 현관타일교체, LED 전등 설치, 욕실 수선설비 교체 등 입주주민이 거주한 상태에서 공사가 가능한 항목을 선정해 세대별 여건에 따라 리모델링을 진행한다.

매입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은 입

주자의 생활안전과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주거공간 개선과 노후공공부품 리모델링으로 진행한다.

입주자 거주 상태에서 교체 가능한 LED 전등, 절수형 설비, 노후 주방가구 등을 교체하고, 공용부품은 옥상 방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공동현관 자동문 설치 등 전체 입주자의 안전과 편의를 개선하는 시설 위주로 리모델링 실시한다.

LH는 효율적인 공사추진을 위해 2~3개 동의 층별·라인별 일괄 공사 시행을 기본으로 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 세대를 리모델링해 거주민을 이주시키고, 소음·진동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채택한 후 해당 동에 대해 층별·라인별 일괄 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이다.

LH는 공사 인접세대 소음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세대, 인근 숙박시설, 단지 내 쉼터를 임시 거주시설로 제공한다.

또한, 화장실 벽체철거 등 소음유발공종에 대해 철거, 커팅공사를 특정 기간 내 집중해 소음발생 기간을 최소화하고, 흡음판·방진망 설치, 주말 소음 발생 작업 전면 금지, 벽체 철거 최소화 등 종합적인 소음저감 대책도 시행한다.

LH 김현준 사장은 "LH 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의 하나로서 이를 통해 임대주택 품질 개선, 취약계층 냉난방비 절감, 탄소 중립 실현, 관련 업계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진천군, '민선7기3년'

진천군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로 도약

진천군이 대규모 투자유치와 우량기업 생산활동에 힘입어 코로나 등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지방소득세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로 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진천군에 따르면 올해 군의 지방세입 예산액은 1,012억 원으로 지난 2018년 민선7기 출범 당시 742억원 대비 약 270억원인 36.4%가 증가되어 경제규모 상위 10개 가운데 증가율이 수위를 차지했다.

군은 이로써 총 세입예산 예산규모에서 전국 82개 군단위 자치단체 중 7위(2018년)에서 5위(2021년) 규모로 올라섰다.

군의 세입예산 급증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지방소득세가 대폭 증가한 것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이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 비율에 따라 내야하는 지방세로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된다.

지역소득세는 지역의 소득규모와 지역 간의 경제활동의 활성화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수치이기도 하다.

진천군의 지방소득세 징수 규모는 2018년 당시 약 378억 원으로 군단위 지역 중 5위에 자리했으나 2021년 상반기 현재 424억 규모로 증가해 2위로 올라섰다.

같은 기간 경제규모 상위 10개 군의 지방소득세는 모두 감소했다. 이 중 법인지방소득세 규모는 지난 3년간 227억 원에서 41.5%인 94억 원이 증가한 321억 원으로 4위에서 2위로 순위 바꿈 했다.

특히 지난 3년 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기업경기 침체와 고용약화로 인해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의 세입예산 규모는 상당 규모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진천군은 대조적으로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국 군단위 자치단체 중 본예산 세입규모 상위 10개 지역을 비교해보면 지난 3년 간 진천군은 세입본예산·지방소득세·법인지방소득세 증가율 부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면적 약 407km로 82개 군 단위 자치단체 중 73위와 인구는 약 8만 4천명으로 10위에 불과한 진천군의 군세를 고려했을 때 지방소득세입과 법인지방소득세입의 규모가 전국 군 단위 2위, 지난 3년간 증가구



모와 증가율 1위는 경이로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군의 지방소득세 세입예산이 대폭 증가한 배경은 송기섭 진천군수 취임 이후 민선6·7기에 거쳐 우량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역점적으로 펼쳐온 결과에서 찾을 수 있다.

군은 지난 6년 연속으로 연간 투자유치액 1조원 이상을 기록했다. CJ제일제당·한화솔루션·롯데글로벌로지스를 비롯해 생산효과가 지대한 우량기업으로부터 총 8조 6천 8백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냈다.

해당기업들의 투자와 설비가 이뤄지고 생산활동이 본격화 되면서 법인에서 납부하는 세수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활발한 기업 활동 덕에 최근 3년간 취업자 수는 전체 취업자의 15.6%인 7,100명 정도가 늘어나 비수도권 자치단체 중 증가율이 가장 높다.

더욱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 통계로 추정된 지역별 근로자 평균임금은 3,771만원으로 충북에서 가장 높으며, 상용근로자 비율은 81.4% 달해 전국 154개 시군 중 7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의 질이 대폭 향상된 것으로 풀이된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대규모 기업 투자유치로 인한 각종 사회·경제적 효과가 지역발전 각 부문에서 본격화되고 있다"며 "기업의 활발한 생산 활동과 고용을 뒷받침 할 수 있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펼치는데 더욱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법인지방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수 증가분(128억원)을 반영해 오는 9월 진천군의회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일하는 기쁨, 활기찬 노후, 포항시가 행복한 인생 2막을 지원합니다

올해 노인일자리 사회참여지원 사업 274억 원 1만5000여 일자리 창출 달성



포항시는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등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포항시니어클럽 등 민간 수행기관 11곳과 지자체 50개 실과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노인일자리와 사회참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포항시는 총 274억 원의 예산으로 총 1만5,500개의 다양한 노인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면서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8년 1만3,000여 개였던 노인 일자리를 올해 1만5,500

여 개 달성에 이어, 내년 1만6,000여 개 창출을 통해 4년 만에 3000여 개 증가를 추진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에는 유형별로 노노케어·환경가꾸미 등의 '공익활동형'과 제조·판매·납품을 주로하는 '시장형', 어린이집·학교 등에 파견하는 '사회서비스형', 기업체에 연계하는 '취업알선형'과 시니어인턴십 등이 있다.

과거에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단순 환경정비 위주의 공익활동형의 일자리가 주를 이루었던 것에 반해, 최근에는 60세부터 참여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베이비 붐 세대 은퇴 인력에

대한 노인일자리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반영해 고학력 은퇴자의 사회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수요처 발굴과 아이디어 개발에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포항시 노인일자리 사업의 양적·질적인 성장은 각종 지자체 및 수행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에 열린 2019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평가 시상에서 포항시가 전국 시군구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포항시니어클럽은 공익&시장형 부문에서 대상, 포항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는 취업알선형 부문 최우수, 시니어인턴십 부문 우수상을 거머쥐는 쾌거를 이뤘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를 통해 경제적 도움과 일하는 기쁨, 건강 회복 등 많은 어르신들의 사업 참여 만족도가 높은 것을 경험한다"며, "민관이 협력한 고품질 전환형 일자리 발굴과 특히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 어르신들의 경력과 지식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더욱 전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포항시는 '베이비 붐 세대' 은퇴 인

력의 사회적 경험을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노인일자리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60세부터 참여 가능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는 참기름까페 미소유, 로컬푸드, 클린토이&워쉬, 미소짓는 가게 등 물품이나 식품의 제조·납품·판매를 하는 시장형 사업이 있다.

특히, 베이비 붐 세대 은퇴자의 삶의 경험과 숙련된 경험을 활용하는 기업체 취업연계를 위한 시니어 인턴십, 시니어 컨설턴트를 비롯해 지난해에는 시니어금융업무지원단을, 올해는 방송모니터링단을 시범사업으로 신규 도입했다.

올 하반기 국민생활시설점검단도 시범사업 추진 예정으로, 다양한 분야에 숙련된 은퇴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모델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시니어금융지원단의 경우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고령층 고객들의 출금표 작성이나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 기기 사용 등을 도와 고객의 손과 발이 되어 주고 있어, 수혜 고객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는 미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김기현/기자

대기배출 방지시설 세종시가 지원해드립니다

28일부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2차 모집

세종특별자치시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인 가운데 오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2차 모집에 나선다.

이 사업은 대기배출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관내 중소기업이나 보일러 및 냉온수기에 부착된 일반 버너를 저노스 버너로 교체하는 사업장에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올해 진행된 1차 사업은 2억 7,000만 원의 예산 내에서 사전 현장조사 등을 토대로 우선순위에 선정기준에 따라 총 7곳의 지원사업장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장은 현재 변경신고 및 착공준비를 하고 있거나 방지시설 교체 중인 중에 있다.

사업 마감 이후에도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의 문의가 쇄도하면서 시는 추경예산에 6억 3,000만 원을 추가 확보해 2차 모집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의 경우 ▲미세먼지 발생원인물질(먼지, SOx, NOx) 배출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주거지 인근 민원 유발 사업장 ▲



상반기 지원사업에 미선정된 업체 등이다.

저노스버너의 경우 ▲제조업 사업장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신청서와 설치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모집기간 내 시 환경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호령로 19, 6층)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윤봉희 시 환경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소규모 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이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충남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사업' 공모 선정

대기배출 방지시설 세종시가 지원해드립니다

충남도는 행정안전부 '2021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사업' 공모에서 5건이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 3,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각 자치단체의 우수 혁신사례 중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사례를 벤치마킹을 통해 도입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번 공모에서 △중소기업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 도로 물고임 시설 구축 등으로 1억 1,000만 원을 확보했다.

서산시와 서천군은 도심 속 한평정원 구축사업으로 각각 2,000만 원을, 청양군은 중소기업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사업에 8,0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타 지자체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사업을 특고세 지원을 통해 선제적으로 도입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확실한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우수한 혁신사업을 도입,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주민 편의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뮤지컬 '미인: 아름다운 이곳에', 캐스팅 공개

미인.. 7월 30일 프리뷰 티켓 오픈



뮤지컬 '미인 : 아름다운 이곳에'가 캐스팅을 공개했다. 뮤지컬 '미인'은 9월 15일부터 YES24스��이지 1관에서 공연된다.

뮤지컬 '미인'은 '삼천만의 히트곡'으로 불리며 전국민의 사랑을 받은 '미인'을 비롯하여 '님아', '봄비', '빛속의 여인', '아름다운 강산' 등 한국 대중 음악의 살아 있는 전설, 신중현의 주옥 같은 명곡을 모아 만든 최초의 뮤지컬로, 1930년대 일제 강점기의 극장 하류관을 배경으로 신중현의 극장 음악과 닮은 아름다운 청춘들의 가슴 뜨거운 이야기를 담았다.

꿈꾸며, 낭만과 오락의 무대 하류관에서 가수로 데뷔하는 '강호' 역에 뮤지컬 '문스토리', '최후진술', 연극 '히스토리 보이즈' 등에서 탁월한 연기력과 호소력 짙은 목소리를 선보이며 실력파로 자리잡고 있는 현석준, 뮤지컬 '마마 돈 크라이', '쿠로이 저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 등 넘치는 기와 특유의 무대 장악력으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아 온 최민우, 실력과 보컬 그룹 브로맨스의 멤버이자 뮤지컬 '쓰릴 미', '귀환' 등에서 섬세하고 솔직담백한 매력을 보여주며 뮤지컬 배우로 거듭나고 있는 윤은오가 캐스팅되었다.

2018년 초연 당시 폭발적인 정서를 담은 음악과 드라마가 어우러져 전하는 뜨거운 울림으로 깊은 인상을 남긴 바 있다.

뮤지컬 '미인'은 강호, 강산 형제와 그들의 돌도 없는 친구 두치, 그리고 시와 노래라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하는 시인 병연, 네 사람의 뜨거운 여정을 그려낸 작품이다.

낭만과 오락의 무대 하류관을 배경으로 혹독한 시절에도 청춘을 불태우는 아름다운 이들의 성장 스토리를 통해 현재의 관객들에게도 유효한 정서적 감동을 선사한다.

유랑극단을 찾아다니며 노래하기 좋아하는 굴다리패 막내 '강호'는 낭만과 오락의 무대 하류관에서 가수로 데뷔하고, 시인 '병연'을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된다.

한편, 동생 강호를 자유롭게 꿈꾸며 살게 해주고 싶은 인텔리 형 '강산'은 일본 대학에 장학생으로 합격하고, 대학 문학부에서 '병연'을 만나 독립 운동을 함께 하게 된다.

유학에서 돌아온 강산과 병연은 강산의 돌도 없는 친구이자 굴다리패의 행동대장 두치와 함께 독립 운동을 준비하던 중 위험에 빠지고, 강호는 형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강호의 형이자 동경대 법학부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인텔리 독립운동가 '강산' 역에 뮤지컬 '윤동주, 달을 쏘다', '미아 파밀리아' 등 넓은 스펙트럼의 연기를 완벽히 소화해 온 박영수와 뮤지컬 '드라콜라', '여신님이 보고 계셔' 등 대극장과 소극장을 오가며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탁월한 연기력을 선보여 온 조성윤이 함께 한다.

어두운 시대에도 음악과 사랑을

모든 보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지적이고 세련된 시인 '병연' 역에 뮤지컬 '헤드워', '섬섬포름', '리지' 등 섬세한 카리스마와 파워풀한 가창력을 보여 온 제이민, 뮤지컬 '그립자를 판 사나이', '목키호러쇼' 등에서 객석을 압도하는 에너지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여은, 뮤지컬 '검은 사제들'로 데뷔하여 단숨에 뮤지컬 '비틀즈'의 주역으로 떠오른 신예 장민제가 캐스팅되어 다양한 매력의 '병연'을 소화할 예정이다.

강산의 돌도 없는 친구이자 강호의 친형 같은 종로 굴다리패의 대장 '두치' 역에는 연극 '알앤케이', 뮤지컬 '미오 프라텔로' 등에서 특유의 따뜻함과 진정성이 돋보이는 연기로 호평을 받아 온 최호승과 뮤지컬 '붉은 정월', '전설의 리를 농구단' 등 다양한 배역을 넘나들며 시선을 끄는 연기를 보여준 조현우가 관객과 만난다.

더불어, 강호 일행의 독립운동을 막아서는 일본 경찰 마사오 외 다양한 인물로 분하는 김윤하와 하류관의 사장 명희 외 다역을 맡은 배에는 이 원캐스트로 무대에 올라 작품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뮤지컬 '미인'은 지난 4월 가능성 있는 신예 발굴에 중점을 두고 전 배역 오디션을 실시한 바 있다. 뮤지컬 '미인'의 제작진은 "다양한 경험과 매력을 가진 배우들의 신선한 조합으로 더욱 활기 넘치고 완벽한 프로덕션이 기대해도 좋다"며 뉴캐스트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강렬한 음악을 닮은 뜨거운 청춘을 노래하는 뮤지컬 '미인'은 7월 30일 금요일 인터파크 티켓과 Yes24 티켓에서 프리뷰 오픈한다.

전순희기자

'우수무당 가두심', '新 K-퇴마물 탄생' 예감!

무 더 위 퇴 치 할 오 짝 짜 릿 한 콘 텐 츠 가 온 다 !

카카오TV 오리지널 '우수무당 가두심'이 오싹 짜릿한 재미로 올 여름 무더위를 시원하게 퇴치할 준비를 마쳤다.

첫 선을 보이는 오는 30일 오후 8시부터 1,2화를 동시 공개하며, 처음부터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전개로 강렬한 몰입감을 선사,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태세를 갖춘 것.

가스를 수 없는 운명으로 엮인 캐릭터들의 첫 만남부터 이들이 마주하게 되는 미스터리한 사건까지, 카카오TV 미드폼 특유의 속도감 있는 전개와 강렬한 흡입력으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재미를 선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우수무당 가두심'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1-2화 예고 영상을 공개, 시원한 여름 극복 콘텐츠를 손꼽아 기다려온 시청자들의 기대를 한껏 고조시키고 있다.

'우수무당 가두심'은 원치 않는 운명을 타고난 소녀 무당 '가두심'(김재륜 분)과 원치 않게 귀신을 보게 된 연친아 '나우수'(남다름 분)가 위기의 18세를 무사히 넘기기 위해 함께 미스터리를 파헤쳐가는 고고 퇴마물이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한 사건을 다루며 오싹한 재미를 주는 것은 물론, 퇴마를 소재로 하면서도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은 주제 의식을 전하며 시청자들의 공감을 자아낼 예정이다.

이날 공개된 '우수무당 가두심' 예



고편 영상에는 귀신을 볼 수 있는 소녀 무당 두심이 송영고등학교에 전학간 당일, 전교 꼴등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긴장감을 조성한다.

두심은 "전교 꼴등을 하면 자살을 한다고?"라고 물으며 학교에서 계속되는 연세 자살 사건에 대한 의구심을 보이고, 전교 1등 우수 역시 자살 현장을 살펴보고 학교를 덮친 전대미문의 사건에 의문을 품어 이들이 미스터리 사건의 정체가 어떻게 접근해 나갈지 궁금증을 유발한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성적 공개 후 전교 꼴등이 누구인지만 관심을 가지고, 100% 자살로 보이는 사건에 대해 "자살이 아니야"라고 말

하는 등 기묘한 분위기를 더하며 사건의 전말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한다.

더욱이 전학을 가자마자 대형 사건을 마주한 두심은 운동복에 도끼까지 든 채 미스터리한 정체를 대결을 벌일 것을 예고해 30일(금) 오후 8시 동시 공개될 '우수무당 가두심' 1-2화에 대한 궁금증을 수직 상승시켰다.

특히 매년 여름 미스터리, 공포, 퇴마 등 장르물들이 찾아와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는 가운데, '우수무당 가두심'은 이날 공개된 예고편을 통해 올 여름 대표 무더위 타파 콘텐츠이자 '新 K-퇴마물'로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최재은기자

'마녀식당으로 오세요', 유튜브 조회수 100만 돌파

올 여름 '집콕' 필수 드라마로 손꼽히고 있는 티빙 오리지널 '마녀식당으로 오세요'에서 유튜브에 무료 공개한 1화가 100만 조회수를 돌파, 뜨거운 관심을 제대로 입증하고 나섰다.

7월 16일 첫 선을 보인 '마녀식당으로 오세요'는 공개 직후부터 입소문 바람을 타고 시청자들을 끌어당기고 있는 터. 이 기세를 몰아 17일(토) 티빙 유튜브에 무료로 공개된 1화 역시 가법게 조회수 118만(7월 23일 오전 기준)을 돌파, 드라마에 쏠린 시선을 실감케 하고 있다.

각종 커뮤니티와 포털 사이트, 유튜브에서 시청자들의 열띤 반응이 속출하고 있는 바. "저도 지금부터 시작했는데 초반부터 넘 흥미 돋는다", "마녀식당 재밌다".

판타지 좋아하면 '효옥 바주면 되', '몰입도 최상인데 우연히 봤다가 끝까지 다 봄', "드라마가 약간 서늘하게 요즘에 보기 딱 좋은 듯 그리고 나처럼 무서운 잘 못 보는데 보고는 싶은 사람들 완전 추천" 등 초반부터 호기심을 자극하며 몰입감을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전개에 강력 추천을

보내고 있다. 무엇보다 1, 2화의 서사를 한층 더 극적으로 완성시킨 송지효(희라 역), 남지현(진 역), 채종협(길용 역)에 대한 찬사도 끊이지 않았다.

"송지효 이번에 인생게 만난 거 같다. 완전 찡떡이고 미묘가 완전 빛난다", "민보배 남지현 공감 가는 생활 연기 진짜 연기 잘해", "채종협 신인인데 완전 눈에 띈다"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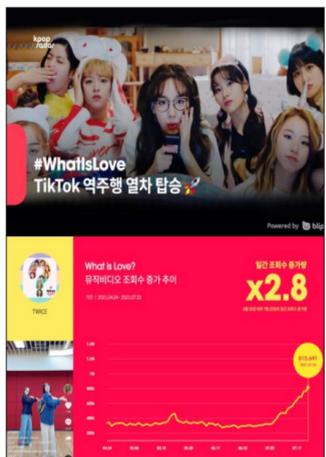
더불어 "와 남지현, 송지효...게임 끝이네", "후반부에 송지효, 남지현 연기 주고받는 거 미쳤음... 소름 계속 돋네", "남지현이랑 채종협은 둘 다 땀방이(명명)이 같아서 붙어 있으면 귀엽더라" 등 초반부터 짜릿한 케미를 발산 중인 배우들의 호흡에도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캐릭터들의 서사와 관계성 및 판타지라는 장르적 특성을 백분 살린 연출이 보는 '맛'을 배가하고 있다는 평을 얻고 있다. 시청자들은 "티지만 봐도 알겠지만 화면 색깔이 영화 수준", "감독님 캐스팅 장인? 다 잘하는 사람들만 잔뜩 캐스팅 했다".

현유주기자

트와이스 'What is Love?' 역주행 돌풍

'What is Love?' 뮤비 역주행, 2019년 이후 최고 일간 조회수 기록



케이팝 레이더가 최근 틱톡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트와이스의 'What is Love?' 역주행 사례를 집중 분석했다. 26일 케이팝 레이더는 "틱톡에서 시작된 'What is Love?' 안무 커버 챌린지가 인기를 끌며 뮤직비디오 조회수까지 역주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일간 조회수가 30일 전과 비교했을 때 3배 가량 증가했다"고 전했다.

현재 틱톡에서 'What is Love?'를 사운드 생성된 영상은 약 30만 개를 웃돌며, #WhatIsLove 해시태그의 총 조회수는 6억735만 건을 넘어섰다.

지난 22일 케이팝 레이더에 집계된 'What is Love?' 뮤직비디오 일간 조회수는 약 81만 뷰를 기록해, 90일 중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What is Love?'가 발매된 해당

년도를 제외한 2019년 이후 최고 일간 조회수로, 3년 만에 재조명 받고 있는 것. 실제 트와이스의 'What is Love?'는 지난 달 공개된 신곡 'Alcohol-Free'보다 더 많은 일간 조회수가 발생하고 있다.

뮤직비디오 뿐만 아니라 음원 역시 역주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5일 기준, 아이튠즈 K-POP 송 차트서 콜롬비아-필리핀-태국에서 2위까지 올라왔으며 브라질 칠레, 페루,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3위, 페루 5위 등 13개국서 TOP 10에 진입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에 케이팝 레이더 측은 "팬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의도치 않은 홍보 효과로 이어지는 것이 틱톡의 묘미"라며 "틱톡에서의 인기가 뮤직비디오와 음원까지 빠르게 반영된다"고 전했다.

한편 케이팝 레이더는 음악 스타트업 스파이스오디타가 케이팝의 금성장에 따라 팬덤의 데이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오픈한 팬덤 데이터 전문 서비스다.

현재 한국 아티스트 640개 팀의 뮤직비디오 조회수, 유튜브 구독자, 트위터, 인스타그램, 스포티파이 팔로워, 팬카페 회원수 등의 변화량을 그래프와 차트 형태로 웹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트위터와 공식 파트너 협약을 맺고 '2020 #KpopTwitter 월드 맵'을 공개해 화제를 모은 바 있으며, 케이팝 팬덤을 위한 앱 '내 손안의 락메이트, 블립(blip)'을 출시해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최재은기자

배우 전여빈, 유니크한 매력 돋보이는 화보 비하인드 컷 공개!



전여빈의 화보 비하인드 컷이 공개됐다.

지난 주 공개된 화보에서 신선하고 새로운 스타일 변신으로 패셔니스타의 면모를 자랑했던 배우 전여빈이 화보 촬영 현장을 담은 비하인드 스틸마저도 감각적인 컷으로 완성시켜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공개된 사진 속 전여빈은 내추럴한 메이크업으로 본연의 자연스럽고

건강한 에너지를 배가시키는 가운데 다양한 콘셉트의 의상과 헤어, 스타일링을 자신만의 매력으로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다. 사랑스럽고 재기 넘치는 표정부터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다채로운 무드를 오가는 전여빈은 매력적인 눈빛으로 화보 촬영에 임하고 있어 시선을 모은다.

촬영 현장에서도 전여빈은 자유분방한 분위기 속에서 치명적인 포즈로 카메라를 압도하는 동시에 눈을 뗄 수 없는 아우라로 존재감을 과시하며 완성도 높은 화보를 탄생시켜 스타프들의 감탄을 자아냈다는 후문이다.

한편, 전여빈의 화보와 인터뷰는 패션 매거진 '지큐(GQ)' 8월호에서 만나볼 수 있다.

최광수기자